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토론회 자료집 (1,2,3 차)

회수	일시	장 소
1차	2004.9.11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2차	2004.10.7	충북대 박물관
3차	2004.11.27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2005. 2.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번지
(경복궁 內 古宮舘중앙박물관 1층)

전화 02)736-1894/737-1894/739-1894

팩스 02)732-1794

홈페이지 : www.parangsae21.or.kr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토론회 자료집 (1, 2, 3 차)

회수	일시	장 소
1차	2004.9.11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2차	2004.10.7	충북대 박물관
3차	2004.11.27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2005. 2.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목 차 -----

정부기념일 제정관련 검토참고자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동학농민혁명의 국가 기념일 선정 기준/ 신영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배항섭 |

고부 백산대회 재고/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토론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2차토론회

무장봉기의 역사적 의의/ 정진상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우금티 전투일’이어야 한다/ 지수결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안하며/ 배항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서

전국적 차원에서의 기념일 제정/ 신영우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 조광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봉기의 의미/ 배항섭

정부기념일 제정관련 검토 참고자료

□ 관련법령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143호)

□ 소 관 : 행정자치부 의정관리국(의정과 의전2계)

□ 주요내용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제정과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1조)
-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주관할 수 없음(영 제5조)
- 순국선열의 날 등 38개 기념일 규정(별표)

□ 제정절차

- 별도 규정은 없고 관련부처, 또는 민간단체 공히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민간단체 신청의 경우 관련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기타사항은 일반 대통령령 제정절차와 동일

□ 행정자치부 입장

- 현재 40여건의 각종 기념일 제정 요청건이 접수, 검토중이며 제주 4·3사건 기념일도 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명의로 지정요청 검토중
- 원칙적으로 정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일반기준은 없으나 국민공감대 및 여론, 전국성, 주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민간에 대한 정부행사 우위의 사고방식 전환 필요)
- 제주 4.3 기념일 제정 요청건에 대하여는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노근리, 거창, 산청·함양 등)과 맞물려 있는 점 및 사건의 지역성 등을 감안, 이들 모두를 기념일로 제정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대안제시 요청중(포괄적인 기념일 등)

국경일 및 기념일 관련 법령(요약)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03.11.27. 대통령령 제18143호)

- '73. 3.20 대통령령 제6615호로 제정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규정
 - 순국선열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등 38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49.10.1. 법률 제53호)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함.
-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 정함.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98.12.18. 대통령령 제15939호)

-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 전날·설날(음력 정월초하루)·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 기념일 중 공휴일은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에 한함.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11.27 대통령령 제18143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등)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5>

③삭제<1982.5.15>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5.15>

②삭제<1998.7.25>

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1982.5.15>

각종 기념일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관련)

(19차개정 2003.11.27 대통령령제18143호)

번호	기념일	월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1	납세자의 날	3. 3	재정경제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토요일	국 방 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	식목일	4.5	농 립 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5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한다.
9	과학의 날	4.2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10	정보통신의 날	4.22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1	법의 날	4.25	법 무 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관광부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번 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을 옹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5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6	스승의 날	5.15	교육부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8	성년의날	5월셋째 월요일	문화관광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19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0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1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22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23	철도의 날	9.18	건설교통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24	국 군 의 날	10.1	국 방 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24의2	노인의 날	10.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24의3	재향군인의 날	10.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5	한 글 날	10.9	문화관광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26	체육의 날	10.15	문화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27	문화의 날	10.20	문화관광부	방송·잡지·영화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8	경찰의 날	10.21	행정자치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9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9의2	교정의 날	10.28	법 무 부	교정관련 종사자들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들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0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재정경제부	국민저축 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31	학생의 날	11.3	교육 인적자원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32	농업인의 날	11.11	농 립 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2의2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33	무 역 의 날	11.30	산업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34	소비자의 날	12.3	재정경제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1949.10.1 법률 제53호 총무처]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998.12.18 대통령령 제15939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12.18>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외국의 국경일 · 기념일 제도

미 국

< 특 징 >

○ 별도의 국경일을 지정하지 않고, 국경일, 종교축일, 국민적 영웅 생일 등 다양한 성격의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 국경일 성격 : 독립기념일, 콜럼버스의 날 등
- 국민적 영웅 탄생일 : 킹목사 탄생일, 대통령의 날 등
- 역사적인 성격 : 현충일, 노동절, 재향군인의 날 등
- 종교축일 성격 : 크리스마스
- 절기적인 성격 : 신정, 추수감사절 등

○ 법정 기념일은 없으나, 대통령, 의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기념일을 선포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200개 이상의 기념일을 운용

< 법정공휴일 (Legal Public Holidays) >

○ 법률(US Code Title 5 §6103)에 의해 10일의 법정 공휴일을 지정

1. 신정 (New Year's Day, 1월 1일)
2. 킹목사 탄생일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1월 셋째 일요일)
3.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2월 셋째 월요일)
4. 현충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5.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7월 4일)
6. 노동절 (Labor Day, 9월 첫째 월요일)
7. 콜럼버스의 날 (Columbus Day, 10월 둘째 월요일)
8. 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 11일)
9.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목요일)
10.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 기타 기념일 (Commonly Observed Days) >

○ 자율적으로 결정된 총 200개 이상의 기념일

1. 대통령이 선포 : 어머니의 날(5월 둘째 일요일, 워싱턴대통령)
2. 연방의회 선포 : 국기의 날 (6월 14일, 연방의회)
3. 시의회 지정 : 폴란드인의 날(3월 첫째 월요일, 시카고의회)
4. 민간단체 선포 : 동성연애자의 날(6월 마지막 일요일)

일 본

< 특 징 >

- 국경일·기념일 구분이 없이 “국민축일” 개념하에 포괄
- 국경일, 역사적인 축일, 천황탄생일 등을 국민축일에 포괄
- 기타 기념일은 각 성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기념행사 거행

< 국민축일 >

- 미풍양속 장려,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국민축일에관한법률”로 14일의 축일을 제정
- 전국적인 기념행사 개최(법정공휴일)
 1. 신정 (1월 1일)
 2. 성인의 날 (1월 15일)
 3. 건국기념일 (2월 11일)
 4. 춘분
 5. 자연의 날(4월 29일)
 6. 헌법기념일(5월 3일)
 7. 어린이 날(5월 5일)
 8. 바다의 날(7월 20일)
 9. 경로의 날(9월 15일)
 10. 추분
 11. 체육의 날(10월 10일)
 12. 문화의 날(11월 3일)
 13. 근로감사의 날(11월 23일)
 14. 천황탄생일(12월 23일) |

< 기타 기념일 >

- 자율적으로 결정된 150여개의 기념일이 있음
 - 일·미 신안전보장조약의 날, 귀의 날, 동물애호의 날 등

영국

< 특 징 >

○ 지역적 측면

- 영국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의 4개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서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측면

- 영국은 정치체제상 입헌군주국가이므로 여왕 및 왕실가족의 생일·왕위 승계일 등이 기념일임
- 다만, 여왕을 제외한 왕실가족의 생일은 일반 국민들에게 별다른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함.

○ 법제적 측면

- 영국은 법제상 대표적인 불문법(不文法)국가이므로, 기념일 및 공휴일중 상당수가 관습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음.
- 관습에 의한 공휴일
 - Good Friday : Easter Day(부활절)의 직전 금요일
 - Easter Day : 3월 21일 이후에 오는 보름 다음의 첫 번째 일요일
- 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71년 제정)에 의한 공휴일

○ 종교적 측면

- 대부분의 서구 국가처럼 기념일 등은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음.
-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각 중앙행정기관이 업무 소관별로 기념일을 정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갖는 제도가 없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회(제 1차)

2004년 9월 11일(토)

오후 2시 반~6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지하, 박물관 시청각실

1. 사 회 : 우 윤
2. 발제자 : 신영우, 배항섭, 왕현중, 김양식, 하원호
박준성(국내 다른 사건)
신순철(국외 사건)
3. 주제
 - 1).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은 어느 날로 제정할 것인가
 - 2). 국내 다른 사건에서 기념일은 어떻게 제정하였는가
 - 3). 국외의 경우는 어떻게 제정하였는가

토론회 前

정남기 회장: 기념일 제정의 경과와 필요성 강조

박기수 행사 사회: 발제자 소개

토론회 시작

사회 우윤: 농민전쟁은 19세기 농민운동 즉 민란과, 그밖에 변란의 총결산으로, 개항 이후 심화되는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대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농민운동의 위대한 전진이었고, 이로써 전근대사를 마감하고 근대사회를 열어간 한국 민중, 민족운동의 본격적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전쟁 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농민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는 농민전쟁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고,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념한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난날 역사를 오늘 다시 살리고 제대로 계승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이고 또 앞으로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기념일 제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또 기념일 제정을 통해 앞으로 기념행사가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토론회 개최를 선언하다.

1. 첫 번째 발제자 신영우 선생님: “동학농민혁명의 국가 기념일 선정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을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준 및 제반 사항을 다루었다.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따른 사건들의 의미,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과 전국성 등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 참고로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일 제정의 예까지 소개하였다.

2. 배항섭 선생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란 제목으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장 기포일,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전주성 입성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루었다. 특히 백산 대회의 날짜와 그 실제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하였다. 백산대회는 3월 27일~29일 경으로 보아야 하고, 백산 대회의 의미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

3. 왕현중 선생님: “농민전쟁 기념주간(양 4월 23일~30일)을 선포하자”는 제목으로 농민전쟁에 대해 전국적 차원에서 역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여러 중요한 사건을 포괄하는 기념주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무장기포에서 백산대회, 그리고 전봉준 처형일을 포함할 수 있는 기념 주관을 제시하였다.

4. 김양식 선생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제정 기준을 역사성, 상징성, 대중성, 현재성 등으로 나누어 주요 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주어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객관적 방안을 내었다. 기념일은 양력으로, 그리고 기념 주간도 진진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5. 박준성 선생님: 국내 다른 사건의 예를 들면서 특히 근·현대 민중운동, 변혁운동의 기점과 직결된다는 의미와 함께 발발 시작일과 공간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백산 창의(대회)일을 적절한 기념일로 제안하였다.

6. 신순철 선생님: 타국의 예를 통해 기념일 제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신해혁명에서 대체로 발발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고 하면서 백산봉기일을 타당하다고 하였다.

7. 하원호 선생님: 기념일 제정은 특히 근대 국민국가 수립 이후 국민적 통합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기념일을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성을 제대로 규명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항의 시작이 무장기포와 백산 기포이므로 저항의 기점에 따른다면 무장기포일로, 공간과 발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백산기포일로 정할 수 있으나, 저 1.의 기념일은 저항의 출발에서 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장기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념 주간도 의미 있고, 현재적 의미에서 음력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5분 휴식)

토론회 속개

1. 우윤 사회: 성공한 혁명이라면 기념일 제정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제정하기가 까다롭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념일 선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발제자의 의견과 그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이화 선생님은 우금치 전투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그 이유는 남북 접이 연합해서 항일전을 펼친 측면과 농민전쟁의 종합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남대 류명철 선생님: 토론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과, 토론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긍정적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개인 소망을 밝혔다.

정읍 계승사업회의 심요섭 이사장: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과 함

게 기념일 제정이 학술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2. 박준성: 백산대회를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본격적인 농민전쟁으로 출발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3. 신영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사건과, 대일항전이라는 측면에서 황토현 전승일, 전주성 입성, 공주 우금치 전투에 비중을 두어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한 주간을 정해 기념할 수도 있다.

4. 배항섭: 백산 대회의 날짜 비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백산대회도 회의적이고, 그때 발한 격문의 내용이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질적 내용이 있다. 5일전 무장기포 창의를 문 발표 후 또다시 격문을 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무장기포일이 가장 타당하다.

5. 김양식: 백산대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장 기포일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양력으로 기념일을 정해야 한다.

6. 신순철: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대중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미를 고려한다면 백산대회가 타당한다. 배항섭 선생이 주장에 따르면 백산 대회가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백산대회는 그 근거가 있다.

7. 신영우: 백산의 지리적 위치와 공간 측면을 검토한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태로운 곳이다. 이는 농민군 지도부의 전술적 능력에 의심이 간다.

8. 왕현중: 기념 주간이 적절하다. 무장기포는 하나의 과정이다. 상징성을 갖는 가공의 날짜일 수 있다. 백산대회는 남북한 공히 중요하게 여긴다. 배항섭 선생의 주장대로 백산대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9. 하원호: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출발한 기점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견의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10. 김양식: "무장포고문"에 충남농민군이 함세한 이유가 있는가.

11. 우윤 사회: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오히려 반외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배항섭 선생은 이 점에 대해 좀더 밝힐 필요가 있다.

12. 배항섭: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무장포고문에 이미 반외세, 반봉건의 의미가 담겨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절충안으로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우금치 전투일에 기념식을 할 수도 있다.

13. 우윤 사회: 많은 발제자가 무장기포일을 선호하고 있다. 신순철 선생은 백산 대회를 타

당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을 좀더 밝혀달라.

14. 신순철: 백산 대회의 실체가 과연 의문이라면 무장 기포 쪽으로 바꿀 수 있다.

15. 배항섭: 백산대회는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격문에 '호남창의대장소'란 말은 '동학사'의 다른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의문이다.

16. 우윤 사회: 이 시점에서 배항섭 선생만이 백산 대회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무장기포, 백산대회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규명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 순서이다.

17. 신영우: 기념일 행사가 전라도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기념일이 승리한 날을 기념일로 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패배한 전투도 기념일로 정할 수 있다.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18. 방청석 중에서 의견

1) 역사성에서 무장기포일이 제일 좋다. 그리고 정체성에서도 무장선언문에 농민전쟁의 성격이 모두 들어있다. 현재성에서도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념사업을 계속 펼칠 것이다. 그러나 역사성에 따른 기념일을 제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특별법이 통과된 2월 9일로 하자. 이 날은 농민군이 승리한 날과 다름없다.

이 의견에 대하여 배항섭 선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농민군의 뜻을 계승하는 당시 사건 속에서 기념일을 정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하였다.

3) 손화중 포가 농민혁명의 승리요건이므로 무장기포가 타당하다.

4) 무장기포 쪽으로 너무 편중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토현 전승일은 정읍시민의 날로 정해졌다. 농민혁명하면 정읍이므로 황토현 전승일이 타당하다.

19. 우윤 사회: 오늘 논의된 것과 문제 제기된 것을 바탕으로 좀더 신중하게 폭넓게 고려하여 제 2차 토론회를 열어 기념일 제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20. 신순철: 이왕이면 전주성 입성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날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역사적 의미로 보아도 다른 날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21. 우윤 사회: 발제자들과 방청객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이미 기념일 제정을 위한 모든 기준과 고려 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다음 토론회에서 좀더 진전된 논의를 통해 기념일 혹은 기념 주간의 문제가 윤곽이 잡히게 하겠다. 이상 토론회의 폐회를 알린다.

-이상-

2차 토론회에 대한 잠정적 계획: 토론회 끝나고 뒷풀이 장소에서 다음 토론회는 청주에서, 날자는 추석 이후 가급적 빠른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고, 논의의 초점은 무장기포의 의미와 백산 대회의 실체 규명, 입법 취지에 따른 반외세 대일항쟁 부분에 대한 발제를 보충하고, 1차 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날자에 대한 의미를 검토한 후 기념일 선정의 범위를 좁히기로 하였다.

東學農民革命의 國家紀念日 選定 基準

申 榮 祐(忠北大)

1. 紀念日 選定을 위한 檢討 項目

1894 - 5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두 가지의 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서 그 과정에서 역사발전의 상징적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동학농민군은 무능하고 부패한 왕조정부와 양반지배층을 상대로 국가운영과 전면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민의 농민항쟁에서 시작되었지만 동학 조직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원민이 가세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다.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무장에서 보국안민을 위하여 농민들이 쫓기할 것을 호소하는 창의를문을 선포하였다.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에 진을 쳤던 동학농민군은 전라 감영에서 출동한 영군을 황토현에서 격파하였고, 이어서 파병된 홍계훈의 경군을 함평에서 패배시켰다. 그 직후 북상한 동학농민군은 감영이 위치한 호남의 수부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전주성에서 물러난 동학농민군은 각 군현에서 민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 향촌사회 내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이 점거되고 경군이 무장해제당하는 등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재봉기에 나섰다. 1차봉기가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부 군현에서 일어났다면 2차봉기는 동학교단까지 참여하여 거의 전국에 걸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할 국가기념일은 다음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발단 2) 확대 3) 1차 봉기의 주요 전투 4) 전라감영의 점령 5)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 6) 재봉기 7) 2차 봉기의 주요 전투 8) 봉기의 전국성

2. 主要 展開過程

1) 發端

① 古阜 農民의 蜂起日 (1월 11일)

2) 擴大

① 茂長 起包日 - 倡義文 宣布日 (3월 20일) : 1차 봉기의 시작을 상징, 호남창의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으로 유교의 윤리를 준거로 봉기의 정당성 표현, 군현 차원을 넘어선 국가 전체의 개혁을 제시

② 白山 大會 - 檄文과 四大名義 (3월 25일) : 호남농민군의 합류,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확대를 명시, 봉기의 목적이 폐정개혁과 반외세임을 명기

3) 1次 蜂起의 主要 戰鬪

① 黃土峴戰鬪 (4월 6일) : 監營軍 擊破, 最初 鎮壓軍 大破, 東學農民革命의 轉機

② 長城戰鬪 (4월 23일) : 京軍 擊破

③ 完山戰鬪 (4월 28일 - 5월 3일) : 東學農民軍과 京軍의 接戰

4) 全羅 監營의 占領

- ① 全州城 入城 (4월 27일) : 湖南 首府 占領, 全國 擴散 契機, 最大 勝利

5) 全州和約과 執綱所 設置

- ① 全州和約 (5월 7일) : 民官 協力 社會改革
- ② 執綱所 設置 (5월 하순경) : 民政機關 弊政改革

6) 再蜂起

- ① 參禮集會 (9월 초) : 對日戰爭 意志
- ② 東學敎團의 起包令 (9월 18일) : 全國 東學組織의 合勢, 東學 內部葛藤 解消, 全國化
- ③ 參禮 集結 農民軍의 北上日 (10월 2일)
- ④ 北接 農民軍의 黃澗 永同 集結地 出發 (10월 중순)
- ⑤ 南北接 農民軍의 論山 合勢 (10월 12 - 16일)

7) 2次 蜂起의 主要 戰鬪

- ① 公州 牛禁峙戰鬪 開始 (10월 23일)
- ② 公州 牛禁峙戰鬪 最大 攻防戰 (11월 9일)
- ③ 論山 東徒倡義所 告示文 發布 (11월 12일)

8) 蜂起의 全國性

- ① 金介男軍의 淸州戰鬪, 嶺南 農民軍의 尙州 善山 占領, 江陵 醴泉戰鬪, 勝利谷戰鬪, 洪州城戰鬪, 海州 監營 占領, 洪川戰鬪, 大屯山戰鬪, 河東戰鬪, 鐘谷戰鬪 等等

3. 選定 基準

- 1) 革命의 契機 - 古阜의 農民抗爭日
- 2) 革命의 始作 - 茂長起包日
- 3) 革命의 大義 確立 - 白山蜂起日
- 4) 革命의 轉機, 最初의 勝戰日 - 黃土峴戰勝日
- 5) 革命의 高潮日 - 長城勝戰日
- 6) 革命의 象徵, 最大 戰績 爭取日 - 全州入城日
- 7) 革命의 成果 獲得, 近代政治 指向日 - 執綱所 設置日
- 8) 革命의 轉換, 對日戰爭 宣布日 - 參禮集結日
- 9) 革命 勢力 大同團結日 - 北接起包令 發布日, 南北接農民軍 論山 合流日

10) 革命의 最大 戰鬪日 - 公州 牛禁峙戰鬪 始作日

4. 選定時 考慮事項

- 1) 歷史 發展上의 意味 附與
- 2) 象徵性
- 3) 全國性
- 4) 紀念日 事業과 行事 便宜 - 季節, 場所

5. 날짜 選定 問題

- 1) 陰曆日 固守
- 2) 陽曆 換算 指定
- 3) 該當 週間 特定 曜日
- 4) 陰曆日 採用時 五年 또는 十年 間 紀念日 豫示

참고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일(Holocaust Remembrance Day) :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시작된 날, 4월 또는 5월 초

Holocaust Remembrance Day, also known by the Hebrew term Yom Hashoah, falls on the 27th day of the Hebrew month of Nisan. The Israeli parliament, the Knesset, chose this date because it falls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Warsaw Ghetto Uprising began and Israel's Independence Day, and also because it occurs during the traditional Jewish period of mourning known as the Counting of the Omer.

Listed below are the dates in the Gregorian calendar on which this memorial day will fall over the next ten years:

2005: Thursday, May 5
2006: Tuesday, April 25
2007: Sunday, April 15
2008: Thursday, May 1
2009: Tuesday, April 21
2010: Sunday, April 11
2011: Sunday, May 1
2012: Thursday, April 19
2013: Sunday, April 7
2014: Sunday, April 27

6. 論議의 始作

1) 茂長起包日 2) 白山蜂起日 3) 黃土峴戰勝日 4) 全州入城日 5) 執綱所 設置日 6) 南北接農民軍 論山 合流日 7) 公州 牛禁峙戰鬪 始作日

농민전쟁 기념주간(4월 23 ~ 30일)을 선포하자.

왕 현 중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1. 취지

1894년 농민전쟁 기념행사일은 지금까지 각기 달랐다. 이른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정한 날이었다. 예컨대 동학농민혁명기념회(사)는 1894년 5월 31일(음 4.27)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일에 맞추어 지난 10년간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04.2.9, 발효 : 9.6)'의 시행을 맞이하여 1894년 농민전쟁(혹은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적 성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기념일 제정의 기준

1894년 농민전쟁은 크게 ① 고부봉기(1.10~), ② 1차 봉기(3.20~), ③ 집강소시기(5월 중순이후~), ④ 2차 봉기(9.14~) 등으로 나누어 진다. 거의 1년간 주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 (1) 농민전쟁의 '발발'을 기념할 수 있는 날짜
- (2) '전국적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짜
- (3) 반봉건·반제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날짜

3. <4월 마지막 주간(4월 23~30일)>으로 정하자.

▶ 근거 ①> 최근 연구에 의하면 1차 봉기는 전라도 무장에서 4월 25일(음력 3월 20일)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고부민란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무장에서 고부로 재차 쳐들어가기 위해 재봉기, 무장 창의문(포고문)의 존재, 지도부의 형성 등으로 보아, 무장봉기를 1차 농민전쟁의 발발로 간주할 수 있다(사례 : “이해 4월 상순 경 피고가 친히 그 무리를 거느리고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지를 갈 새”, 『전봉준 판결선고서』; “봉준 등은 무장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무장 포고문)” 황현의 『오하기문』 등. 단, 무장에서 봉기한 것은 맞으나 봉기의 목표는 우선 고부로 쳐들어가서 고부를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 근거 ②>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4월말 고부의 백산에서 모여 창의소를 꾸린 것을 중요시했다.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들이 진영을 갖추고 정식으로 창의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4월 30일(음력 3월 25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산창의소를 중시한 것은 ‘호남창의대장소’ 명의를 격문, 4대 행동강령 등이 발포되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오지영의 『동학사』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오지영의 서술에서는 농민군의 전개과정 기술착오, 백산창의문 날짜 착오 등 여러 오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후 연구에서는 백산창의를 중요시했다(북한에서는 “1894년 2월 15일(양력 3월 21일) 전봉준은 백산에서 농민군 지휘부로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산창의는 고부민란에서 1차 농민전쟁시기까지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 근거 ③> 2차 봉기는 1차와 달리 전국적인 규모를 가졌음으로 삼례에서의 2차 봉기(9월 14일 : 음력 10월 12일), 공주 우금치 전투일(11월 9~12일 : 음력 12월 5~8일)을 상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2차 봉기를 기념하는 날짜는 1차 봉기의 발발과는 무려 6개월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2차 봉기의 뜻을 기리는 상징적인 날짜를 따로 정해야 한다. 결국 전봉준,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부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선고 받은 날(혹은 처형일)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 이 날짜는 1895년 4월 23일(음력 3월 29일)이다.

이 날은 19세기말 조선민중이 떨쳐 일어났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한 서양제국주의 세력과 구래의 조선봉건지배층을 타도하지 못하고 외세의존적인 권력에 의해 패배한 날이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반제·반봉건이라는 저항과 혁명의 정신은 일제하에서 남북분단, 그리고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 내려왔다. 따라서 앞으로 ‘민족의 독립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이상 세 논거에 의해 4월 마지막 주간(4월 23~30일)을 농민전쟁 기념주간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 농민전쟁 기념주간 날짜표(2005~2014년)

년도	4월 23일	4월 30일	요일	년도	4월 23일	4월 30일	요일
2005	음) 3.15	음) 3.22	토	2010	음) 3.10	음)3.17	금
2006	3.26	4.3	일	2011	3.21	3.28	토
2007	3.7	3.14	월	2012	윤3.3	윤3.10	월
2008	3.18	3.25	수	2013	3.14	3.21	화
2009	3.28	4.6	목	2014	3.24	4.2	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1차토론회)

배 항 섭

들어가는 말

2004년 2월 9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념일도 그에 걸맞는 의미를 지니는 날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개의 날자와 그 날 있었던 사건의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학혁명기념일> 제정을 위한 예비적 자료로 삼고자 한다. 또 제2조 제1항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1894년 3월 이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무장기포일(1894년 3월 20일, 양력 4월 25일)

전봉준은 고부민란을 기화로, 인근 고을에서도 민란이 일어나면 그 힘을 결집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뜻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3월 3일경부터 끝까지 남아 있던 고부민들도 해산하기 시작하였고, 13일 경에는 전봉준도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여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였다.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

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물러와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무장기포 당시에는 약 4천명이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舉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布告文>을 발표하였다.

<무장포고문>

(상략)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날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중략)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 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정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사는 까닭에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음.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표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不殺人 不殺物 2) 忠孝雙全 濟世安民 3) 逐滅倭夷 澄清聖道 4)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¹⁾ 이어 농민군들은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

<무장포고문>에는 외세에 대한 반대의 뜻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장기포 일은 농민전쟁이 시작된 날이라는 점,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는 <무장포고문>의 내용, “濟世安民” “逐滅倭夷” “驅兵入京 盡滅權貴”라는 <4대명의>의 내용, <輔國安民倡義>의 깃발을 내걸었다는 사실 등에서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된다.

2. 백산대회일(1894년 3월 27-29일경)

무장을 떠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의 진격로는 다음과 같다.

무장기포(3/20) - 고창(3/20-3/21) - 흥덕(22) - 부안·정읍 - 고부(3/23) - 고부·태인(3/24) - 금구·원평(3/25) - 고부·백산·예동 - 태인 용산면 화호리(3/26-3/38) - 태인(3/29) - 원평(4/1) - 금구(4/2) - 태인 인곡면 북촌 용산·부안 부흥역(4/3-4/5) - 고부 도

1) 「大韓季年史」, 『총서』 4, p.363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pp.292~293. p.295. 「大韓季年史」에는 4대 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명의 농민군을 불러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교산 황토현(4/6) - 정읍 삼거리(4/7) - 흥덕 - 고창(4/8) - 무장(4/9-4/11) - 영광(4/12-4/15) - 함평(4/16-4/17) - 무안 삼내면(4/18) - 함평(4/19-4/20) - 장성(4/21-4/22) - 갈채에서 정읍 사이(4/23-4/24) - 정읍 - 원평(4/25) - 두정(4/26) - 전주성(4/27)이었다.

3월 26일 저녁 6시경 고부 白山面 禮洞에 있던 농민군은 태인군 龍山面 禾湖 新德亭리로 옮겼다. 白山이 있는 곳이다. 3월 26일 백산으로 이동한 사실은 고부에서 3일 유진한 후 백산으로 옮겼다는 『동학사』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농민군들은 진용을 새로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白山大會'이다. 백산대회에 대해 오지영의 東學史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고부에 留連한 지 3일 후에 大軍을 몰아 白山에 진을 옮겨 치고, 다시 軍을 組成할새 衆望에 의하여 全瑋準이 大將이 되고 孫和中, 金開南이 總管領이 되고 金德明, 吳時泳이 摠參謀가 되고 崔景善이 領率將이 되고 宋熹玉, 鄭伯賢 등이 秘書가 되었었고 大將旗幅에는 輔國安民 四字를 大書로 特書하였고 이에 再度의 檄文을 지어 사방에 전하였었다.

檄文 “우리가 義를 擧하여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石(磐泰山)의 우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強暴)한 強賊(盜賊)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자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이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 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 正月 日 湖南倡義大將所 (古阜)白山”

백산대회 직후일 것으로 여겨지는 3월 29일에는 태인현 용산 화호, 곧 백산에 설진해 있던 농민군은 태인현으로 서찰 한통을 보내 '포수와 창수 각 1백 명을 거느리고 북과 나팔, 징과 바라를 일제히 울리며 기다리라'고 하였다. 서찰 말미에는 <濟衆義所>라는 서명이 있었다. <濟衆義所>라는 명칭은 이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 3월 29일 경 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의 2배에 가까운 6, 7천여 명이었다(『隨錄』, p.182).

이로 미루어볼 때 백산대회는 무장에서 4천명으로 기포한 농민군이 고창 흥덕 고부 태인 금구 등지를 석권하며 6, 7천명으로 세를 불린 다음 전주성 공격을 앞두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위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지휘체계와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목적으로 치러진 대회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안으로는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強暴)한 強賊(盜賊)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라는 내용, “全瑋準이 大將이 되고 孫和中, 金開南이 總管領이 되고 金德明, 吳時泳이 摠參謀가 되고 崔景善이 領率將이 되고 宋熹玉, 鄭伯賢 등이 秘書가 되었었다”라는 내용은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그러나 <백산대회일>이 『동학사』에 1월인 것으로 나와 있으나, 오류이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가 불분명하고, <백산대회>와 <격문>도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만 발견된다는 문제가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백산대회가 개최된 날짜를 3월 25일로 파악하였으나, 불명확하다. 오히려 농민군의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백산대회는 3월 26일에서 3월 29일 사이에 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산대회의 날짜를 3월 25일로 이해하는 근거는 “고부읍에서 留連한

지 삼일 후에 대군을 몰아 고부 백산에 진을 옮기고”라는 『東學史』의 서술내용이다. 3월 23일의 3일 후를 3월 25일로 파악한 점도 석연하지 못하지만, 농민군의 날짜별 활동지역을 살펴 볼 때도 농민군이 총집결한 <白山大會>가 3월 25일에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우선 전봉준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의 경로는 3월 23일 12시경 줄포에 도착하였다가 오후 6시경 줄포를 출발하여 오후 8시경 고부를 점령하였다. 3월 25에는 고부에서 화약고를 불태우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오후 2시경에는 군기고로 향하기 위해 고부 서북쪽 間路상(백산 예동방면임)에 있었거나(隨錄, pp.163~64), 고부 동쪽인 斗池里에 진을 치고 있었다(「隨錄」, p.178 ; 「梧下記聞」, p.56). 이들은 태인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그날 밤을 머물렀다(「隨錄」, p.178 ; 「梧下記聞」, p.56). 이상의 사실로 볼 때 3월 25일 현재 전봉준 부대는 고부의 동북쪽에 있는 白山(태인 화호)이 아닌 고부 서북쪽(백산 예동방면)에 있는 군기고를 공격하였으며 그날 밤은 원평에서 숙영하였다.

따라서 3월 25일 백산대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황상 백산대회가 개최된 것은 농민군 본대가 백산면 예동으로부터 태인 화호(백산)로 이동하여 주둔한 3월 26일 저녁 6시경(「隨錄」, pp.179~80 ; 「梧下記聞」 首筆, p.56)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부에서 백산으로 이동한 시점이 저녁 6시경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산대회는 3월 27일 이후부터 <濟衆義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3월 29일 오후 2시 이전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황토현 전투(4월 6일, 양력 5월 10일)

백산대회 이후 농민군은 북상을 시작하여 4월 1일 오전에는 금구 원평까지 진격하였다. 농민군은 4월 2일 금구까지 진격했으나 감영 포군 1만여 명이 농민군을 치러온다는 소문을 듣자 4월 3일 태인으로 후퇴하였다. 농민군 주력부대가 금구로 진격할 때 ‘白山餘黨’으로 표현된 일부의 농민군은 부안으로 갔다. 4월 3일 원평으로부터 후퇴한 농민군 주력부대는 태인현 仁谷 龍山場에 들어와 숙영하였다. 다음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태인에 남고 일부는 4일 12시경에는 부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4월 1일 무렵부터 부안에 모여있던 500여 명의 농민군과 합세하였다. 부안의 농민군들은 4월 5일 부안 城隍山으로 옮겼고, 이날 정읍에서 올라온 농민군 수백 명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또한 이 무렵 금산의 농민군 1,000여 명도 부안으로 내려와서 합세하였다.

세를 불린 농민군은 관군이 협공을 꾀하자 4월 6일 아침부터 부안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여 고부의 도교산으로 옮겨 주둔하였다. 이에 감영에서는 병정과 別抄軍·褫負商을 도교산으로 파견하였으며, 농민군과 이들은 黃土峴에서 맞닥뜨려 4월 6일 오후 4시 경부터 접전이 시작되었다. 태인에 남아 있던 농민군들도 4월 6일 밤에는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다음날인 4월 7일 새벽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은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황토현 전투도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황토현 전투는 농민군이 최초로 감영군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전투는 농민군의 행동과 사기 면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招討使 洪啓薰은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營兵을 패퇴시킨 후 濫意日生하여 각읍 각리에 붙이는 격문의 내용이 語逼莫嚴하므로 전보로 보내기가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고, 농민군들이 더욱 증가하여 聚散이 무상하며 평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하였다. 또 김윤식은 황토현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관군을 대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더욱 꺼리는 바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逐滅倭夷”와 함께 “驅兵入京 盡滅權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황토현 전투는 관군과 최초로 접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영군이였다.

4. 장성 향룡천 전투(4월 21일, 양력 5월 25일)

4월 21일 함평을 떠난 농민군이 공격하려 한 것은 나주였다. 그러나 나주가 아니라 장성을 공격한 것은 이 무렵 나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관군 측의 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4월 21일 장성 월평리에 도착한 농민군은 三峰 아래 있는 黃龍村에 진을 쳤다. 4월 23일 오후 2시경 농민군은 隊官 李學承이 거느린 경군과 싸워 이학승을 전사시켰고 크르포포 1坐, 回旋砲 1坐와 화약 등을 빼앗았다.²⁾

경군과 최초로 접전하고 그를 격파한 장성전투는 농민군의 의식성장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미 교조신원운동 시기에도 범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선무사 어운중이 이끌고 온 경군과 무장하여 맞서려는 부류도 있었다. 또 茂長起包에 참가한 농민군들 가운데는 교조신원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해가던 부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군들의 대체적인 의식수준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 불과하였고 감히 드러내 놓고 관군과 대적하지 못하”거나 “군대가 내려가면 곧바로 귀순하는” 형편이었다. 장성전투 이전까지만 하여도 농민군 일각에서는 “우리들은 다만 역적의 병사들만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上命을 받은 京軍에게 저항했다고 하십니까”라고 하며 국왕의 명령에는 복종하고 主上의 군대, 곧 경군과의 대결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성전투의 승리는 이러한 농민군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서 “이로 말미암아 王師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재차 공격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무렵부터 ‘邑村無非內應’이라 하여 호응하는 지역이 많아졌다. 각 읍의 수령들은 모두 겁을 먹었고, 이미 4월 7일에 있었던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의 군대가 농민군에게 크게 패배한 이후 겁을 먹고 있던 경군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그 때문에 초토사 홍계훈은 병사를 거두어 전주성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장성전투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이나 농민군이 “逐滅倭夷” “驅兵入京 盡滅權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의식을 갖추어 나가는 데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대단한 전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전주성 점령(4월 27일, 양력 5월 31일)과 <전주화약>(5월 8일)

금구를 거쳐 전주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豆亭에서 하루를 더 숙영한 뒤 4월 27일 오전 10시경에는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농민군 측에서는 수 백명의 농민군을 상인으로 위장하여 성안에 투입시켰다. 성문은 이와 같이 위장해서 들어간 농민군, 그리고 농민군과 내통한 관속들에 의해 안에서 열렸다. 감사 김문현은 달아났고 전주성이 함락되는 시각 초토사 홍계훈은 영광에서부터 계속 농민군의 쫓아다니다가 태인현에 도착하여 있었다.

2) 『兩湖剿討騰錄』, p.171 ; 『兩湖電記』, p.114 ; 『梧下記聞』, p.72, p.338 ; 『東匪討錄』, p.335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64. 『東匪討錄』에는 장성전투가 4월 22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전주성 점령 직후 농민군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성내의 주민들을 위무하였다. 길에서 부녀자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축하지 않고 길가의 아동들에게 부축하여 일으켜주도록 하였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慰諭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모내기할 때를 놓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성을 점령한 날 오후에는 성내 장시에는 사람들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왕래하였고 은성안의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였다고 하였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군과 관군 양진영간의 전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각지를 돌며 승승장구하던 농민군은 오히려 수세적으로 물리게 되며, 농민군의 뒤만 쫓아다니던 관군은 공세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4월 28일 오전 8시경 전주에 도착한 洪啓薰은 전주성 밖의 완산에 진을 치고 농민군과 대치하였다. 5월 2일까지도 洪啓薰은 ‘彼衆我寡’하여 성을 포위하기 어려우며, 또 농민군의 후원군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니 청국 군대와 恩津에 있던 청주 營兵, 巡邊使 李元會의 평양군 등이 빨리 와주기를 독촉하며 매우 초조해 하고 있었다. 농민군 측에서도 곧 후원군 7천여 명이 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실제로 전주 점령 후 수세에 처한 농민군은 충청도 쪽으로 사람을 보내 원병을 요청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5월 2일까지의 몇 차례 전투에서 승세를 취한 관군 측의 사기는 고양되었다. 농민군 측에서는 전주성 점령 후 관군이 날로 증가되고, 사방이 포위되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끊겼으며, 싸울 때마다 패배하고 군량은 바닥이 났고, 성을 타넘어 도망치는 농민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민군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전봉준은 점패를 보며 “3일을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 또한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죽을 곳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조금 더 참지 못하는가”라고 하며 농민군들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5월 3일에 벌어진 전투가 관군 측의 대승리로 끝나면서 전세는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전투는 관군 측을 대단히 고무시킨 반면, 이미 동요하고 있던 농민군 진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洪啓薰은 이 전투에서 농민군 500여명을 斬獲하고, 소년장수 李福用을 참수하였으며 전봉준의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고 하였다. 초토사 홍계훈은 이 전투의 결과 농민군 내부에는 自中之亂이 일어나 농민군의 半은 도망하고 부상을 입은 자들은 성안에서 지키기만 할 뿐 성밖으로 나오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자신감을 얻은 洪啓薰은 청군의 출병을 급히 요청하던 5월 2일까지의 입장을 철회하여 5월 4일에 청국 군대가 상륙할 경우 양호지방에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동정을 살핀 후에 상륙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게 된다. 조정에서도 청국 군대가 下陸하더라도 내륙으로 전진하지는 말아 줄 것을 원세개에게 요청하였다. 전주성의 전황이 그 만큼 관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월 4일 농민군 측에서는 ‘濟衆生等義所’ 명의의 <訴志>를 洪啓薰에게 보내 ‘귀화할 뜻’을 전달하였다. <彼徒訴志>의 주요내용은 먼저 擧兵屠戮한 것은 지방관들이었고, 대원군을 모셔 監國케 하는 것은 이치가 매우 합당한 것으로 逆謀가 아니라는 점, 慶基殿에 放砲한 것은 관군이고,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다만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掘塚討財는 자신들도 매우 증오하는 것이라는 점, 招討使가 선처하여 보고해주기를 바란다는 점등으로 이전 시기의 통문이나 정문에 비해 현저히 수세적이었다. 이 때 농민군 측에서는 홍계훈에게 27개조의 폐정개혁 27개조를 함께 전달하였다. 그러나 홍계훈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농민군 측은 끈질기게 27개조 폐정개혁 요구안의 上達 약속을 요구하며 쉽게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 속에서 5월 6일 청국 군대가 아산에 상륙하고, 5월 7일 오후에는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42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입경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에서도 농민군의 해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드디어 5월 8일 아침 招討使 홍계훈은 드디어 농민군 측의 폐정개혁요구를 국왕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5월 8일 농민군은 폐정개혁요구를 국왕에게 계달하는 것은 오직 招討使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장 전주성에서 철수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겠으며, 병기는 招討使의 교시에 의거하여 반납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홍계훈이 전주성에 들어간 것은 5월 8일 오전 10시경이었다.

농민군 주력부대는 1, 2차에 걸친 세물이를 통해 1만 내지 2-3만 정도의 농민군을 규합함으로써 전주성 점령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 중앙의 권귀를 척멸하고 대원군으로 하여금 監國하게 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폐정개혁안 27개조를 제시하고 그것을 국왕에게 보고하겠다는 초토사의 대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주화약은 농민군에게 유리한 국면에서, 또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얻어낸 성과는 아니었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군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의 역전을 초래하였다. 전주화약은 일차적으로 전주점령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청일군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농민군이 수세적 입장에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맺은 측면이 강하였다.

6. <관민상화>(7월 6일, 양력 8월 6일)

전주성에서 퇴각한 농민군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청·일 양국 군대의 동향이었다. 청·일 양국군의 출병사실, 특히 청군의 출병 사실은 주체적 역량의 미숙이라는 점과 더불어 농민군측이 전주성에서 서둘러 철수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것은 전주성을 빠져나간 농민군의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5월 8일 전주성에서 빠져나와 고산, 김제, 금구 등의 방향으로 나누어 흩어진 농민군이 곧바로 무장을 해제하거나 완전히 해산하여 귀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각 읍에 반납하는 등 대체로 해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고 전주성까지 장악하였다가 '화약'을 맺고 해산한 사실에 대해 고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약' 직후에는 청군의 동향을 주시하는 등 행동을 자제하던 농민군은 招討使가 이끄는 京軍이 귀경한 5월 20부터 각 고을에 都所를 설치하고 錢穀과 무기류를 탈취하거나 관아를 공격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전주화약이 이루어져 농민군이 해산한 뒤 조선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일 양국군의 철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청·일 양국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애야 했고, 농민군들이 완전히 진압되어 전라도 일대가 안정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 점은 전봉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한편으로는 청일군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그들이 계속 주둔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농민군들의 설분행위를 금단하고자 하였다. 전봉준은 富民을 침학하는 무뢰배들에 대해 관에서 체포해줄 것을 바라는 동시에 나주와 금구의 수령을 罷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다. 결국 농민군 측에서도 撫局을 지킬 터이니, 관측에서도 무고한 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한 나주와 금구의 수령을 쫓아내어 농민군들이 歸家安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이 시기 전봉준의 일차적 관심이 撫局의 유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봉준은 경복궁 강점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일본의 출병에 대해 壬辰倭亂 때 일본이 내세운 ‘征明假道’를 연상하며 그들의 침략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 이후에는 “우리들의 거사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청일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마리가 되기에 이르렀는 바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관심의 중심이 반외세 쪽으로 경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의 6월 23일 일어난 경복궁 강점이라는 사태는 전봉준, 김학진 모두에게 대외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으며, 7월 6일에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관민상화>의 방책이 성립됨에 따라 농민군의 활동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관민상화>는 외세의 침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관군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후 집강소를 통해 민중 자신이 분명히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들이 요구하였던 바의 구체적인 폐정들을 體系的으로 개혁해나가며 그것을 制度化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종래의 민중운동에서는 볼 수 없던 중요한 경험이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관민상화>는 폐정개혁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외세의 침략행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官民相和의 한 주체인 김학진의 입장과 크게 상치되거나 연합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보수층과 재산이 있는 자들을 자극하여 왜의 침략행위를 목전에 두고 敵前分裂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적 모순”을 강조하여 <官民相和>에 충실하고자 한 전봉준의 노선과 “계급 모순”을 강조하던 농민군 대중이 실제적으로 전개한 반봉건 활동 가운데는 서로 합치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았고, 나아가 크고 작은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7. 제2차 농민전쟁 기포일(9월 10일?, 양력 10월 8일)

전봉준이 제기포를 결심하는 것은 9월 10일 무렵이었다. 전봉준이 제2차 기포, 곧 반일투쟁을 결심하기 직전인 9월 2일 대원군측 밀사인 朴東鎭과 鄭寅德등이 전주로 내려왔다. 이들은 기포하여 상경할 것을 촉구하는 대원군의 密敎를 가져와 9월 7, 8경 전봉준에게 전달하였다. 이들은 먼저 전봉준의 처족 7촌이자 全羅左右道 都執綱을 맡고 있던 宋憲玉과 접촉하였다. 송희옥은 대원군측의 밀사를 만난 다음날 휘하의 농민군들을 거느리고 전주성을 빠져 나갔으며, 9월 6일 전봉준에게 밀사와 접촉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띄웠다.

송희옥의 편지를 받은 전봉준은 삼례로 가서 박동진과 정인덕을 만났고, 9월 8일 이전 李建英이 남원의 김개남을 찾아가서 국태공의 명령이라며 ‘起兵赴京’할 것을 密諭하였다. 같은 무렵 전봉준도 삼례에서 이견영을 만나 “국가의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는 국왕의 밀지를 받았다. 전봉준은 국왕의 밀지가 도착한 사실과 그에 대한 비밀을 당부하는 회람을 義龍, 月波, 和中 등으로 명기한 동지들에게 돌렸다.

전봉준은 대원군 밀사와의 접촉을 통해 일본이 8월 16일에 있었던 평양전투에서 청나라 군대에 승리한 사실, 일본이 명백한 침략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군이 농민군 진압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대원군은 집정은 하고 있으나, 일본이 내세운 개화파에 포위되어 사실상 자시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과 중앙정국의 추이, 일본군의 침략의도와 농민군 진압계획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그 동안 반일투쟁의 개시를 연기한 이유들 가운데 아직 수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농민군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진왜란의 참화를 연상하며 “국가가 멸망하면 生民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하기 위해 재기포를 결심하였던 것이다. 재기포를 결심한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남절을 토벌하라”는 국언까지 하였던 동학교단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미 7월, 8월에 걸쳐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는 교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기포하는 동학 교도가 점증하였고, 사실상 기포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농민군의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북접 산하의 접주들이나 농민군들이 이미 교단의 통제 밖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측근들마저 동학교도들이 무고하게 살상당하는 참상을 보고하자, 드디어 9월 18일 崔時亨은 청산에 각 포의 접주들을 청산에 불러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 “先師의 宿冤을 快伸하고 宗國의 急難에 同赴할” 것을 지시하였다. 함께 기포하자는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북접에서도 法所와 都所를 倡義所로 개칭하였으며, “우리 접주들은 힘을 합하여 倭賊을 쳐야겠”다는 통문을 돌리고 반일항쟁에 동참하게 된다.

한편 9월 18일을 기해 기포를 결정한 북접 동학교단은 산하의 각지 접주들에게 동원령을 전달하는 한편, 10월 11일에는 청산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북접에서는 청산대회의 소식을 늦어도 10월 11일에는 전봉준에게 통보하였으며, 대회를 마친 다음 남접세력과 합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일본군은 보은에서 체포한 농민군으로부터 “최시형은 14일 청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15, 16일에 걸쳐 2만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한 후 황간, 영동을 경유하여 전주로 가서 전봉준과 합세할 계획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다.

재기포를 결심하고서도 한달 여 동안 삼례에 머물며 무장을 강화하고 있던 전봉준이 10월 11일 무렵에 북상을 개시한 것은 이 무렵 북접으로부터 청산대회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점과도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북상을 시작하여 논산에 도착한 것은 10월 12일이었다. 여기서 전봉준은 다시 농민군을 초모하였다. 삼례에서 출발할 때 농민군의 수는 4천여 명이었으나 북상하는 과정에서 농민군의 수는 늘어났고,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논산에서 손병희가 이끌고 온 북접의 농민군과 합세함으로써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할 때에는 1만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제2차 기포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입법취와 관련해 볼 때 특히 후자의 요건을 충실히 충족시킨다. 또한 제1차 기포에 비해 더 넓은 계층이 참여하였다는 의미도 가진다. 다만 6위루말부터 반외세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또 8월 25일에는 전봉준보다 오히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金開南이 남원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고 기포를 결의하였다. 8월 19일 경부터 농민군이 남원으로 모여들었으며, 9월 1일에는 김개남과 기맥이 통하던 금구출신의 대접주 金仁培가 광양·순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재기포를 시작하였다. 농민군 본대와는 봉기에 나서는 생각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북접의 기포선언은 9월 18일이었고, 남북접이 논산에서 합치는 것은 10월 12-16일경이었다. 이 때문에 기포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8. 우금치전투일(11월 8-9일, 양력 12월 4-5일)

전봉준은 논산에서 10여일 이상 체류하였다. 박제순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띄우고서도 1주일 이상을 더 머물렀다. 이것은 농민군의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였으며, 아직 농민군의 역량이 취약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과 합류한 직후부

터 전봉준은 공주공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3일 밤 논산의 농민군은 공주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는 경천을 점령하였다.

공주성을 둘러싼 최초의 전투는 10월 23일 이인에서 벌어졌다. 경천에 주둔한 전봉준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북접계 농민군은 이인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효포로 향하였다. 이인역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은 10월 23일 鈴木이 인솔하는 일본군 50명, 성하영의 경리청 1개소대 병력, 구완희가 이끄는 감영병력 4개 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취병산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음날 이인에서 물러났으며, 관군도 감영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대교까지 진격하여 진을 치고 있던 북접 옥천포의 농민군이 경리청 副領官 洪運燮의 공격을 받고 20여 명의 전사자와 6명의 생포자를 남긴 채 40, 50리 이상 퇴각하였다. 2개소대 병력을 이끌고 효포에 주둔하며 지키고 있던 홍운섭은 23일 밤 논산으로부터 경천을 향해 4만여 명의 농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 같자 24일 새벽에 효포의 병력을 철수하여 대교의 농민군을 공격한 것이다. 같은 날 전봉준은 효포 건너편의 산쪽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가 홍운섭이 이끄는 경리청군이 大橋의 농민군을 공격하러 간 사이에 효포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한편 전봉준은 논산일대에서 다시 결집한 농민군이 2만여 명에 이르자 노성과 경천으로 다시 진출하여 군량을 나르고 포대를 설치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감영에서는 일본군과 관군이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두 부대는 판치와 이인으로 나가 주둔하고 하나는 감영에 남아 있는 방식으로 서로 순환하며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전투는 11월 8일 오후 3시 쯤 시작되었다.

우금치가 위급해지자 11월 8일밤 森尾 대위는 우금치 옆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진을 쳤다.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11월 9일 아침 농민군은 동쪽으로 板峙 뒷산으로부터 서쪽으로는 鳳凰山 뒤 기슭까지 3, 40리에 걸쳐 마치 병풍을 펴놓은 듯한 진세를 펼치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11월 9일 오전 10시쯤 이인에서 우금치 방향과 오실 뒷산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오후 8시경까지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4, 50차례나 펼쳤다. 결과는 농민군의 패배였다. 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11일, 12일경에는 능치 등 공주 부근 산봉우리에 남아있던 농민군 마저 관군에 쫓겨 계룡산 등지로 후퇴함으로써 20여 일에 걸친 공주공방전은 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우금치 전투는 북접과도 합세, 전국적으로 농민군이 모임. 침략세력인 일본군과 직접적인 대규모 교전. 뿐만 아니라 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최대규모. 농민군이 패배한 전투였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기념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무장기포는 이미 반외세 반봉건의 출발이었다. 전봉준 등 농민군은 이미 이전부터 척왜척양 및 반외세 운동 시작하였으나, 다만 공격하거나 싸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반외세 투쟁은 일본군이 조선에

고부 백산대회 再考

김양식(충북학연구소)

1. 백산대회 관련 검토

1) <<東學史>> 기록

“고부에 留連한지 3일 후에 大軍을 몰아 白山에 진을 옮겨 치고, 다시 軍을 組成할새 衆望에 의하여 전봉준이 大將이 되고 손화중, 김개남이 總管領이 되고, 김덕명, 오시영이 總參謀가 되고 최경선이 領率將이 되고, 송희옥, 정백현 등이 秘書가 되었었고 大將旗幅에는 保國安民 4자를 大書로 特書하였고 이에 再度의 檄文을 지어 사방에 전하였었다.”

*檄文: ----- 甲午 正月 日 湖南倡義大將所 在 白山

“東學軍이 古阜城을 陷落한 後 白山에 돌아와 陣을 치고 再度의 檄文을 發한 後로 湖南一帶는 勿論이고, 全 朝鮮江山이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하고 혼흔들 하였었다.”

⇒ 백산이 조직 재정비, 전력 강화, 전국 확대라는 의미 지님. 백산대회 유무 불투명

⇒ ‘고부에 留連한지 3일 후’가 왜 3월 25일인가?

*신용하교수 논저-----단지 추정한 것일 뿐

2) <<天道教書>> 기록

“時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탐학불법하여 民財를 掠奪함이 無所不至한지라. 前봉준이 제족구민의 策으로써 고부 마항리에서 기포하여 白山에 會集하니 손화중, 최경선이 共히 舉事하는지라. 由是로 湖南列郡이 일시에 響應하니 其衆이 數千萬人에 達하였더라”

⇒ 백산이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 백산대회.

3) <<梧下記聞>> 기록

(23일)

“古阜郡報, 今二十三日東徒三千餘人 ----- 分屯鄉校及各公廨
興德縣報, 東徒三千餘名 自高敞移屯本縣 將向扶安

(25일)

金溝縣報, 今二十五日 彼輩中火泰仁 止宿本縣원평
同日未時 出古阜郡報 彼輩進屯本郡斗池面 火藥庫燒

(26일)

泰仁縣報, 彼輩自古阜之白山禮洞, 移屯本縣龍山禾湖新德亭, 放砲吶喊, 其勢浩大, 防禦沒 策
金堤郡報, 彼黨傳令本郡, 而稱以邑底所捧錢穀幾許, 解事吏-持-文簿, 來待路站

(29일)

泰仁縣報, 彼黨自龍山禾湖 來傳一札 使率砲手各一百名, 鼓角錚鏘, 一齊來待,,後署濟衆義 所

⇒ 26일부터 태인 화호 집결, 그 세력 확대, 관의 방어책 상실

⇒ 29일 태인 서찰에 제중의소---이미 조직 재정비 완료 증거. 따라서 26일 현 백산에 집결하여 27-28일에 걸쳐 조직 재편성한 듯. 그 때문에 농민군 활동 소강상태. 이 기간 농민군 동정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이유.

4) <<日史(강재 박기현)>> 기록

(3월 24일)

“이번달 17일부터 각자 무기를 갖추고 고부에 모였다고 하니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 동학의 무리는 고부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팔도에서 각각 한 곳에 모였다고 한다.”

(3월 29일)

“며칠전 동학의 무리들이 고부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또 화약을 탈취하러 화약고에 들어갔다가 ----- 또 들으니, 경상도 상주와 함안 등지의 동학군이 모인 자가 부지기수이며, 우리 전라의 고부와 정읍 등지의 官長들의 길은 통하지 못한다고 한다”

⇒ 3월 24일 이전에 이미 각지에서 동학군 집결.

예) 무주-3월 23일 무장 포고문 도착

⇒ 무장 포고문의 의의

2. 3.20 - 3.29 일지

3.16 사방에서 농민군이 무장 당산으로 집결하기 시작 (隨錄)

3.20 무장 당산에 농민군 4천여명 집결, 포고문 반포 (수록)

3.23 무장 농민군이 12시경에 줄포 도착, 오후 8시경 고부 점령 (수록)

3.25 고부 화약고 폭발

고부에 머물던 농민군이 태인으로 이동하여 점심, 원평으로 이동하여 주둔 (수록, 오하기문)

3.26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저녁 6시경 고부 백산면 예동에서 태인 화호(백산)로 이동하여 주둔 (수록, 오하기문)

3.27-28 : 백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3.29 濟衆義所 명의로 태인 용산 화호(백산) 농민군이 태인군에 서찰을 보냄(????). 농민군 규모도 무장기포 때보다 2배 많은 6,7천명 (수록)

⇒ 제중의소는 농민군본부. 따라서 이미 3월 29일 이전에 조직 재정비한 듯.

3. 백산대회는 언제?

□ 위 일지로 보아 백산대회가 3월 25일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3월 26일 이동사실로 보아 백산대회가 열렸다면, 이미 26일부터 집결했을 터
- ⇒ <<동학사>>에 나오는 “고부에 留連한지 3일 후” 해석: 고부 점령부터 화약고 폭발까지는 3월 23-25일. 따라서 3일 후는 3월 26-28일임.
- ⇒ 3월 26-29일에 걸쳐 백산에 주둔하면서 조직 재정비, 무장 강화. 이 때문에 농민군의 대외적인 활동은 소강상태
- ⇒ 따라서 현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백산대회는 3월 26-29일로 넓게 잡아야 함. 그렇다면 백산에서 무슨 일이 진행?
- ① 조직 재편성
 - 농민군 위상 강화: 湖南倡義所 ⇒ 濟衆義所
 - 농민군 조직 재편성: 전봉준 총대장 등(동학사 기록 근거)
 - ② 규율 정비
 - 4대명의 발표(대한계년사)
 - 격문 발표(동학사)
 - ③ 무장 강화
 - 인근 군현에 통보, 포수등 인적자원 확보, 창·검 등 무기, 장·복 등 농악기 등 확보

□ 백산대회의 성격

- 무장 출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조직 재정비·재편성 및 무력 강화하였을 터
- <<동학사>> 외에는 확인가능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외적으로 크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언제?

- 백산대회는 어느 특정 날짜에 개최된 것이 아니라, 3월 26-29일을 대회기간으로 보아야 함.
- 백산대회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한다면, 백산대회 시작일인 26일이나 26-29일을 기념주간으로 잡을 수 있음
- 그렇지만 백산대회는 무장 기포의 연장선상에서 혁명이 한 단계 발전되는 전환점.
*농민전쟁의 단계별 발전: 무장기포⇒백산대회⇒전주성점령⇒전주회담(7/6)⇒재기병
- 실질적으로 농민전쟁의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무장기포일인 3월 20일에 바람직.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토론회

2004년 2월 9일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농민전쟁과 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110년 동안 법적으로 여전히 동비, 비도, 화적이거나 동학란, 반란이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족들이 국회에서 청원 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여전히 명예회복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부정적인 답변의 근거에는 1962년 문교부에서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¹⁾. 여기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이고 그 희생자까지만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전쟁과 농민군은 언제나 법률적 명예회복과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특별법을 통한 명예회복만이 유일한 길이라 결론짓고, 국회 농민전쟁 연구회를 통해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9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특별법상 기념일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지난 3월 13일 제창립한 동단협의 주요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기념재단의 주요 기념사업과 직결되기에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개최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기념일 제정은 앞으로 농민전쟁의 기념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상징적이거나 실질적인 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1994년 백주년 되는 해에도 기념일 제정을 이미 논의했으나 지역별 기념사업회와 관련 단체간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기념일 제정이 안타깝게도 무산된 적이 있다. 그래서 좀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전개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소집된 동단협 실행위원회에서 지난 번의 예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지역이나 조직적 이권과 무관한 관련 연구자 중심으로 학술적인 진지한 논의를 통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념일을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오늘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념일이 정해진다면 이 기념일은 곧 동단협의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어 특별법 상의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원위원회에 건의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1) 그때 심사위원은 차관(이승우)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의 사학자(황의돈, 장도빈, 이병훈, 신석호, 유홍렬, 홍의섭)들로 구성되었다. 사실 이 시기는 을미의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시절이었다. 또 그때까지 갑오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 갑오란 등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 유족들은 여전히 자기 선조의 활동을 숨기고 살 때였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다.

토론의 주제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력으로 할 것인지 양력으로 할 것인지.

날짜를 고정시킬 것인지,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날짜 보다는 요일을 정할 것인지.

1994년 12월에 제정되고 1997년 1월에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령 제 52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살펴보자.

우선 동법률 제 4조(적용대상자)에서 정의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관한 명문을 살펴보자.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

***이이화 선생님 의견

우금치 전투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남북접이 연합해서 항일전을 펼치고 의미가 확장되어 농민전쟁의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읍계승사업회 심요섭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본사업회 의견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음력 4월 7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은 학술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 가장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인식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알려졌고 특별법에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념일에 관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백산봉기일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정들을 고려할 때 황토현전승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대 류영철 선생님

영남대학교 한국학부에 객원교수(강의전담)로 있는 류영철입니다.

이이화선생님의 권유로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아무런 기여함도 없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제가 주도하는 아주 조그만 단체의 답사모임이 두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천 등의 일로 혹 답사가 취소될 경우 서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서는 이 분야에 보다 천착하여 연구해 오신 여러 선생님
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날의 토론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는 개인적 소망을 담아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2차 토론회

날짜 장소: 2004년 10월 7일 충북대 박물관

9월 11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제 1차 토론회에서 기념일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 농민전쟁 전개과정상 주요 사건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사건 및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념주관과 수량화하여 정하는 방법론까지 제기되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보지 못한 점들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기념일 제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무장기포의 의미와 백산대회의 실제 규명,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른 반외세 대일항쟁 부분에 대한 토론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차 토론회에서 좀더 폭넓은 고려와 신중한 진행을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요구하였고,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2차 토론회에 각 지역 기념사업회의 대표주자들을 선정하여 참석시킨 것도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받아주길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념일은 과거의 역사를 기념한다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난 의미있는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념일 제정은 지방 차원에 머물렀던 기념행사 및 농민전쟁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생생하게 살아있는 110년 전의 역사를 되살리는 원년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작업은 오늘 기념일 제정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 만큼 기념일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기념일 제정과정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결과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그런 의미들이 우리의 현실적 과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

2004년 2월 9일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농민전쟁과 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110년 동안 법적으로 여전히 동비, 비도, 화적이거나 동학란, 반란이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족들이 국회에서 청원 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여전히 명예회복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그런던 것이 드디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 농민군 참가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110년 전 농민전쟁의 역사가 바로 복원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물론 그동안 연구자들이 발로 뛰고 연구실에서 땀흘린 결과이지만 특별법을 통해 국가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념일 제정 토론회는 그러한 의미를 전국가적으로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진지하한 실천이며, 이제 막 창립된 기념재단의 뜻깊은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 각 지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의 참석에 감사드리고, 특히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올리며 2차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다음 토론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3차 토론회에도 더욱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념일 제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이라도 피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 글을 올립니다.

2차 토론회에서 기념일 제정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좋은 결실을 거두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백산봉기 날짜를 기념일로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김양식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의미있는 날짜가 아닌 것이 없겠지만, 극지적인 봉기가 아닌 전국화
된 시발점으로서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부 1차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고부농민들이 봉기한 것이니 그 나
름대로 의미는 크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적인 한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단위로 확산된 상징성으로 보자면 무장기포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창의문과 통문을 돌려 호
남 전체에서 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한 후 정식으로 농민군 지도부가 조직되었으며, 아울러 4대강령까지

제시된 백산봉기 날짜가 상징성이 좀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양식 선생님께서 그 의미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저는 간략히 적습니다만, 백산봉기일인 4월 30일을 동학기념일로 제정했으
면 합니다.

만약, 차선책을 제시하라면 무장봉기일인 4월 25일도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백산봉
기일(4.30)을 기념일로 삼자는 것이 제 소견이고, 다른 날짜를 고려해보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무장기
포일(4.25)을 제시합니다.

참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글로써 간단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순천대학교 사학과 홍영기 드림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1차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소개된 요약글 보았을 뿐입니다.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두가지만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입법과정에서 용어가 선택되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용어를 쓴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1894년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전제로 할 때

북장기포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하대 사학과 이영호.

무장(茂長) 봉기의 역사적 의의

정 진상(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무장 봉기는 국지적 농민항쟁의 '전국적 농민전쟁'으로의 전환점이다.

사회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의 여러 농민운동, 특히 1862년 임술농민항쟁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것은 농민항쟁의 국지적 성격을 뛰어넘어 전국적 규모의 농민전쟁으로의 도약이다. 농민주체세력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임술농민항쟁의 경우 군현 단위의 국지적 동원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 규모로 주체세력을 동원했다. 운동 조직의 측면에서도 임술농민항쟁의 봉기조직이 일시적 성격을 가졌던 데 비해 동학농민혁명의 봉기조직은 기본적으로 군사 편제로서 상대적 지속성을 가졌다.

여느 농민항쟁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된 고부농민항쟁이 전국적 규모의 농민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는 고부농민항쟁의 주력부대가 항쟁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한 이후 무장을 풀지 않고 말목장터를 중심으로 주둔하면서 지속적인 저항을 전개하는 한편, 다른 군현의 지도자들과 일체 봉기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고부농민항쟁이 일어난지 두 달여만에 무장에 집결하여 창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농민전쟁을 시작한 1894년 음력 3월 20일은 상징적 의의가 압도적이다. 다만, 대중성을 고려하여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념일을 정하고, '무장 기포'를 '무장 봉기'로 지칭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무장 봉기일인 몇 월 몇 일로 정한다'로 하면 좋을 듯하다.

2. 무장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의 기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에서 근대는 자생적 경로의 발전을 저지당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 촉발되었다. 근대의 핵심적 과제는 봉건적 토지소유와 신분제를 두 축으로 하는 전근대적 지배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도 농민반란이 봉건제를 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봉건제를 대체한 사회세력은 농민이 아니라 신흥 부르조아지였고, 그에 따라 부르조아지의 해체모니가 관철되는 근대로의 이행이 일어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외세의 침략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근대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일은 구래의 지배계급이나 신흥 부르조아지가 아니라 농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근대의 주체로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의병항쟁, 3.1운동, 해방직후의 민중운동으로 이어졌다.

무장 봉기는 민중이 군현단위의 '공동체'의 매물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민으로 결집하는 과정의 단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저항적 민족주의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제2차 농민전쟁이지만, 그러한 민족주의가 표출될 수 있는 '국민'의 결집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군현에서 집결한 농민군은 근대적 국민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무장 창의문에는 전근대적 지배질서의 해체와 함께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3. 무장 봉기는 이후 한국 사회운동사의 '일체 봉기'의 효시다.

기념일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에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박물관에 놓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운동에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진행 과정에서 황토현, 황룡촌 전투, 전주성 입성, 집강소 설치 등 승리의 순간을 맞보기도 했지만 패배한 사회운동이며, 그 때 제기된 역사적 과제가 아직 완수되지 않고 있다. 농민군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이후 백 여 년의 사회운동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각 군현의 농민군들이 무장에 집결한 '일체 봉기'는 사회운동의 방식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어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에서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3.1운동, 해방직후의 인민위원회, 그리고 6월항쟁은 '일체 봉기'의 방식을 통해 중요한 성과를 거둔 사회운동들이다. 6월항쟁 이후에는 '일체 봉기'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이러한 '일체 봉기'의 효시로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무장 봉기일이 기념일로 가장 적절한 또 다른 이유이다.

4. 이미 제안된 날들에 대한 의견

1) 백산 대회에 대하여

백산 대회일의 날짜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의미있지만 오히려 부차적이다. 백산 대회는 전쟁의 전술적 의의 정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백산기포에 의의를 둔다면 전술적 편제의 편성과 농민전쟁의 공식화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형식보다는 농민군의 집결이라는 내용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2) 황토현 전투에 대하여

황토현 전투는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전술로 승리를 거둔 전투이므로, 동학농민혁명의 '승리'를 강조하여 오늘날 민중의 희망을 북돋우는 상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농민전쟁의 참담한 패배와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

3) 우금치 전투에 대하여

우금치 전투는 남북집이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벌인 항일 반제투쟁 이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 혁명의 종합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의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투는 참패한 전투이다. 물론 전봉준 과 농민군은 죽음을 각오한 역사의식으로 최후의 전면전을 조직하여 이후의 민족운동의 에너지를 공급 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의 도청사수와 비슷한 비장한 우금치 전투를 통해 대중들에게 그러한 역사의 식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전주성 입성에 관하여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은 전라도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가 있다. 그러나 전주성 점령은 무혈입성이었으며 이는 전술적 승리에 불과했다.

5) 기념 주간에 대하여

기념 주간을 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념주간만을 정할 때에는 상징적 시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기념 주간을 제정하더라도 기념 주간 중에 기념일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6) 특별법 제정일에 대하여

국가의 기념일 제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것은 일말의 진실을 갖고 있다. 현재의 지배세력이 기념일을 제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민중의 힘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날을 정한다면, 국가가 기념일을 정하는 주체가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 져올 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이 화석화될 우려가 크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우금티 전투일'이어야 한다.
지수걸(우금티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1. '기념사업(역사화)'의 기본방향

○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하는 질문, 결국 "어떻게 '역사화'(기억의 제도화, 공식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통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역사화'하는 사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화해야 할 것인가?

○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의 민족사(혹은 민중사)적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사화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한말의 의병운동이나 일제하의 민족독립운동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좋은 역사 소재이자 전통이라 말할 수 있다.

○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제대로 기념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구한말 의병운동이나 일제하의 민족독립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의병운동이나 민족독립운동과는 달리,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110년 전 동학농민군은 단순히 국가 안위나 독립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당연히, 단순히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중투쟁의 역사적 상징이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 하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 국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가운데서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이른바 '내셔널 히스토리'(국가민족사) 속에 포섭되어, 역사상(歷史像) 자체가 박제화, 화석화될 가능성이 크다. 달리말하면 국가주도의 기념사업 과정에서, 민중의 역사를 민족이 '專有'(appropriating)'하고, 또 그 민족의 역사를 국가가 전유하는 과정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기우일런지는 모르나, 기념사업 주체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아니 각별한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광주국립묘지'나 '황로현유적지'처럼, 또 하나의 구태의연한 '국방 유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오늘의 토론주제인, 기념일 제정문제,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와 관련해 볼때,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번 발제에서도 밝혔듯이, 바람직한 방법은, 기념일을 법률로 특정하지 않은 채, 각계 각층(각 지역 기념사업단체, 유족회, 천도교, 농민회 등등)의 기념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적 지향을 담아, 제 나름대로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기념일을 특정해야 한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① 역사적으로 볼때 의미가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②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대중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이른바, 역사적 상징성이 강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어야 한다. 그러면 왜 우금티 전투일(마지막 전투일: 1894년 음력 11월 11일)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2. 왜 '우금티전투일'이어야 하는가?

1) 우금티전투의 역사적 의의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혁명처럼 성공한 혁명이 아니라, 외세와 봉건권력에 의해 처절하게 압살된 미완의 혁명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이같은 역사성을,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금티전투이다. 물론 많은 농민군이 희생된 전투, 우금티 전투 이외에도 많다(보은, 서태안, 금산, 영동, 옥천 등지에서도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죽음(패배), 우금티에서의 죽음(패배)과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다른 전투와는 달리 우금티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승부처, 더 크게 말하면 혁명역사의 분수령을 이룬, 그야말로 '대회전'이었다.

둘째, 우금티전투는 다른 어떤 전투보다 참여주체의 폭이 넓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이 일부 지역 농민들의 국지적인 전투가 아니라 전국적, 전민족적인 봉기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면 당연히 우금티 전투를 주목해야 한다. 우금티전투에는 일본군은 물론이고 관군과 유희군(민보군),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 농민군, 동학교단(북접 교단), 이유상 등 애국적인 유생이나 관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셋째, 우금티전투는 한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사적인 사건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우금티 전투는 일본군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淸國軍도 참여한 전투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보기라 말할수 있다. 게다가, 우금티전투의 동아시아사적인 의미를 따지는 작업(일본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 당연히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왜곡논쟁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런 전지에서 20세기사에 대한 동아시아적 반성(동아시아 단위의 과거사 청산문제, 인권 및 반전평화문제)의 소재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제대로 역사화해야 한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반외세운동이라 말하나, '반외세성'(민족 대단결의 정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군의 정복군 점령 이후, 즉 제2차 농민전쟁 과정에서 전개된 우금티 전투는 전투 직후에 발표된 「告示 京軍與營兵吏校市民」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성('의병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게다가 농민군이 정규 일본군과 제대로 전투를 벌인 곳은 오로지 우금티에서 뿐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반외세 자주화 운동이나 민족대단결 운동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금티 전투의 역사적 상징성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 21세기를 향해 열려있는 기념사업이 되게 하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민족과 근대에 대한 욕망', 또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허구적 관념'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열개(기본 컨셉)가 짜여져야 한다. 이런 전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려면, 반제반봉건 운동이라는 특성 이외에, 민중(전통)사상인 '동학사상'(人乃天, 後天開闢)에 기초한 혁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김지하나 김용옥의 성과처럼, 동학사상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른 전투와는 달리 우금티 전투는 남북집(특히 동학교단과 충청도 지역의 농민)이 적극 가담한 전투였다.

2) 우금티전투의 대중적 상징성

첫째,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첫 기포나 전투가 가지는 의미, 그리 크지 않다. 프랑스혁명 기념일이 바스티유감옥 습격일인 까닭은, 이날 대혁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나,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미완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씨앗은 무장이나 백산이 아니라 우금티에서 뿌려졌다고 해야 옳다. 우금티전투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이자, 한국 근현대 민족민중운동의 씨앗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우금티의 패배와 죽음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밑거름이자 씨앗이었다(역사의 '씨앗론', 혹은 '밑거름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각종 문학작품이나 민중가요 등에 우금티나 금강이라는 상징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금티전투(처절한 패배)가, 민중 주체의 민족해방운동, 또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각종 운동에 다양한 역사적 상상력의 자양분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승리를 경축하는 행사가 아니다.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제의(祭儀)적'성격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죽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도 결국은 제례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며 기념일을 특징한다 할 경우, 최대의 승부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우금티전투일이 당연히 주목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그 패배(밑거름과 씨앗), 그 죽음의 의미를 (向我設位 한뒤) 역사문화적으로 기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역사발전의 주체와 목표를 새롭게 반성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역사만들기' 운동이자, '희망찾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념사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사건이었음을 각인시킬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사적지조성 사업이나 기념사업, 이같은 의미 이혼했다. 일반 대중들의 경우, 전라도농민들만의 전쟁으로 인식해온 감이 없지 않다. 충청도나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심지어는 교과서조차도 다루지 않고 있다. 우금티 기념일을 농민혁명기념일로 특징하는 경우, 농민혁명의 역사는 물론이고 기념사업 자체의 전국성을 부각시키는데도 유리하다. 그래야 기념식이 지역의 축제가 아닌 전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 전민족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개별 사건이나 전투, 어쩌보면 우금티전투가 유일하다 할수 있다.

넷째, 다른 유력한 대안, 예를들면 백산 혹은 무장기포일, 황토현 전투일, 전주임성일, 삼해재기포일 등과는 달리 우금티전투일은 초저울(추수 뒤끝, 양력이지는 하나 현재 '농민의 날'도 우연히 11월 11일이다)이다. 주지하듯이, 전통사회의 농민봉기, 일반적으로 농사철을 피해 일어났다. 지금도 그렇다. 동학농민전쟁 기념식, 특히 추모식은 당연히 추수 뒤끝, 특히 눈발이 휘날릴때여야 한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 물론 우금티 전투일은 추운때이다(음력 11월 1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22일이다). 하지만 기념일 특히 제삿날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3.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우금티 사업회의 제안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각각의 기념사업단체들이 자신들의 지향과 의식을 반영한 기념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독자적,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때, 동단협이나 새로 만들어질 '재단(대표기구)'은 지역별, 혹은 관련 단체별로 진행되는 각종 기념사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연대의 매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혁명의 역사,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지방분권시대에도 어울리는 기념사업 방식이라 할수 있다.

○ 하지만 어떤 필요에 따라, 굳이 기념일을 특정해야 한다면, 앞서도 정리했듯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은 우금티전투일이 되어야 옳다. 물론 고부봉기, 백산이나 무장기포, 황토현전투나 장성전투, 전주 입성, 삼례재기포 등도 중요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특정하기에는 사건 자체의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약하다. 우금티전투야말로 민족과 근대의 욕망이 넘쳐흐르기 전,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우금티기념일로 정한뒤, 우금티에서 지역수준이 아닌 국가적 수준에서 위령제가 치루어져야 하며, 위령제의 주체(제주)는 당연히 동단협이나 기념재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념행사는, 지역민들이나 자치단체가 기념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진 지역에서 치루어져야 한다. 첫 기포일(무장기포일)부터 첫 전투일(황토현전투일)까지를 이른바 '기념기간'으로 특정한뒤, 각 지역사업회(주민)가 주체가 되어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존시설(전시관, 교육관, 박물관, 사당 등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우금티전투일이 기념일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자원을 배분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기우(杞憂)일 뿐이다. 만약 우금티에 또다시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지으려 한다면,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사당을 짓거나, 쓰레기같은 거대한 추모조형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금티 사업회가 먼저 나서 단호히 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물론, 백제제전(공주, 부여)을 찾는 수학여행단을 위해, 우금티에 전시관이나 박물관, 혹은 교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회는 우금티 터널 공사 이후 생기는, 터널 위 부분의 도로용지를 원형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공원화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는 수준에서 고갯길과 능선(탐방로)을 일부 복원하는 정도의 사적지 조성사업만 이루어질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본다.

○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주의 경우, 유족도 없고, 우금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향토사학자나 지역인사도 매우 드문 형편이다(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경우, 배분될 국가자원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야 옳을 듯 싶다). 게다가 우리 우금티 사업회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소박한 사업 이외에, 거창한 기념사업들을 전개할만한 뜻도 역량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업회가 담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도 따로 법인을 구성한뒤 독자적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회의 주장은 지극히 간단 명료하다. 특별법 정신에 의거하여 제대로 기념사업을 하려면, 우금티기념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정한뒤, 대표기구(동단협, 혹은 기념재단)가 적극 나서서 우금티기념제례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금티는 우금티기념사업회나 공주의 우금티가 아니라 전체 사업회나 전민족의 우금티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이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금티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큼니다. 우금티전투가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은 전투에 참여한 세력의 다양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금티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감영군, 정군, 일본군(청군도 크게 보면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희군(민보군), 그리고 전라도 농민군과 충청도 농민군, 동학교단, 이유상 등 애국적인 유생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첫 기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프랑스혁명 기념일이 바스티유감옥 습격일인 까닭은, 이날 대혁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미완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씨앗은 무장이나 백산이 아니라 우금티에서 뿌려졌다고 해야 옳습니다. 우금티전투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이자, 한국 근현대 민족민중운동의 씨앗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금티의 패배와 죽음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밑거름이자 씨앗이었다 말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그 씨앗, 달리 말하면, 그 패배, 그 죽음의 의미를 (向我設位 한뒤) 역사문화적으로 기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발제에서, 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역사적 상징성이 큰 우금티에서, 우리의 진보문화역량을 총동원한 제의 형식의 행사로 치루어져야 하며, 祭主는 당연히 동학단체협의회('대표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시민운동단체인 우금티기념사업회가 여러 형식의 제의(위령제, 예술제, 농민시위, 역사만들기대회 등등)를 근근히 치루어왔으나, 동학특별법이 통과된 마당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금티에서 산화한 동학농민군은 공주사람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주의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유족도 없고, 우금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향토사학자나 지역인사도 매우 드문 형편입니다. 저는 우금티기념행사는 물론이고 사적지 조성사업도, 우금티사업회가 '대표기구'가 주도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우금티기념사업회는 사업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시민운동단체(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사랑하는 공주지역의 동호인 모임)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적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금티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른바 사적지추진위원회(우금티사업회와 공주시의 협의기구) 결성을 추진중입니다만, 이는 중여지책일 뿐입니다. 바람직한 사업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기에는 우금티사업회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업회의 주장은 지극히 간단 명료합니다. 법정신에 의거하여 제대로 기념사업을 하려면, 우금티기념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정한뒤, 대표기구가 적극 나서서 우금티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금티는 우금티기념사업회나 공주의 우금티가 아니라 모든 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회와 전민족 민중의 우금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금티기념사업회는 다른 지역의 사업회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우금티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지수결 올림)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안하며

(제2차 토론회)

배 항 섭

1. 들어가는 말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의 뜻을 생각하고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농민혁명이 사실상 1년여간 지속되었던 만큼 어느 날짜를 잡아도 무방할 것이다. 농민군의 꿈과 이상은 이미 농민혁명발발 이전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농민전쟁 기간 내내 어느 하루라도 그들의 꿈과 이상이 생각이 잊혀졌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면, 다른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것을 가장 적절히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있었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민혁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농민혁명 기념일을 <무장기포>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전봉준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무장기포>(1894년 3월 20일, 양력 4월 25일)의 역사적 의미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일찍부터 “輔國安民” “濟世安民”을 위해서는 “반봉건”의 과제뿐만 아니라 척왜척양이라는 “반외세”의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의 權貴를 일소하여 개혁을 단행하여야 했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동학에 입도한 것도 무엇보다 동학에는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동지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늦어도 1893년 1월부터 보국안민을 위한 “倡義”를 기도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동학 조직을 활용하여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한 전봉준은 1893년 말경에는 전략을 수정하였다.

1893년 말 경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봉기계획”에 따르면 일단 고부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고부민란을 일으키면, 인근 고을에서도 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힘을 결집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뜻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3월 3일경부터 끝까지 남아 있던 고부민들도 해산하기 시작하였고, 13일 경에는 전봉준도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여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였다.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무장기포 당시에는 약 4천명이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舉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布告文>을 발표하였다.

<무장포고문>

(상략)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날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중략)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 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정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사는 까닭에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 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음.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포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不殺人 不殺物 2) 忠孝雙全 濟世安民 3) 逐滅倭夷 澄清聖道 4)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 이어 농민군들은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

<무장포고문>에는 외세에 대한 반대의 뜻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도에 반외세의 과제가 상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전봉준은 일찍부터 “그의 동지인 동학당 수령 무장 손화중과 태인 김개남·최경선과 금구 김덕명 등과 의논이 많았었고, 고부인민 幾個人과도 약속이 있었으며, 기타 경향 각방면으로도 志氣相合處에 많은 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를 바로잡고 세상을 혁신하기 위하여는 어느 당파거나 어느 계급이거나를 물론하고 구애가 없이 맞손을 잡고 일을 할 작정을 세웠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드나들며 국내외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당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던 대원군과도 접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장기포 당시의 정황상 농민들의 의식 속에서 “척왜척양”은 아직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들의 과제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었다. 전봉준은 1893년에 들어 “척왜척양”을 내걸고 몇 차례의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³⁾ 이 과정에서

3) 전라감사에게 척왜양 통고문을 보낸 1893년 2월 10일 무렵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동학교도들과 일반 민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문을 게시하였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왜양을 剿滅하려는 것일 따름이고 平民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를-필자) 범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

앞 부분은 일반 民人들을, 뒷 부분은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합상소 직전부터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정부나 官側에 보낸 이전 시기의 글과는 전혀 달리 척왜양을 주조로 한 통문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고 각 읍 관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반 인민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보냈다. 이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주도면밀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거사를 앞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무렵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왜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요체는 “금수같은 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지”는 것이었다. 부기된 4개조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 근래 바깥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위로는 종사가 위태롭고 아래로는 (오랑캐의) 財色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비할 데 없이 통탄스럽다. 기필코 쓸어 없애버릴 따름일 것.

“척왜척양”의 구호가 가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이 “척왜척양”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곧장 서울로 쳐들어가 중앙권력을 전복하려던 이전 계획과 달리 고부에서 “민란” 형태로 봉기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봉준은 우선 농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던 불만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를 통해 四大名義에 제시된 바와 같이 驅兵入京하여 逐滅倭夷 및 盡滅權貴하여 濟世安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농민군이 궁극적으로 목적인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逐滅倭夷 및 盡滅權貴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자 과정이었다.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는 <무장포고문>의 내용, “濟世安民” “逐滅倭夷” “驅兵入京 盡滅權貴”라는 <4대명의>의 내용, <輔國安民倡義>의 깃발을 내걸었다는 사실 등에서 이 점에서 <무장포고문>은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함축하고 있고,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입법 취지와도 부합된다.

또한 무엇보다 <무장기포일>은 농민전쟁이 시작된 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체현하고 있다. 이 점은 3.1운동이나 4.19혁명도 마찬가지이다.

3. 나머지말

우금티 전투는 그동안 농민혁명에 반대하였던 북접과도 합세하였고, 북상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많은 농민군이 가담하였다. 또한 침략세력인 일본군과 직접적인 대규모 교전으로 반외세 투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전쟁 전개 과정에서 최대규모의 전투였으며, 사실상 농민혁명이 좌절되는 현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3월 20일의 무장기포가 “반봉건” 뿐만 아니라 “반외세” 운동의 출발이었다. 전봉준 등 농민군은 이미 이전부터 척왜척양 운동을

- ② 하늘을 받들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냄에 있어 장정을 가려 뽑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잡지 않음으로서 위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래로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인민들은 안심하고 樂業하라. 혹시 충성을 본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合力할 것.
- ③ 불효하고 不忠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는 도적임이 분명하니 우선 그를 討罪할 것이니, 개과천선하여 후회하지 말 것.
- ④ 서학에 입도한 사람은 동방에서 태어나고 동방에서 자라 國君의 땅을 갈아먹고 선왕의 법을 따랐으면서 그 이름을 오랑캐의 나라에 붙이고 그 마음을 오랑캐의 땅에 두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복무하니 어떤 마음에서인가? 매우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본래대로 돌아와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

척왜양의 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충의지사’의 동참을 선동함과 동시에 抑強扶弱의 생각이 담겨 있는 일종의 행동강령까지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전개한 바 있다. 무장기포 당시 제시된 <4대명의>에서 드러나듯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에 대한 외세의 방해가 구체화할 경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2차 봉기 경복궁을 침범이라는 일본군의 구체적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점이나 우금티 전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무엇보다 농민혁명의 궁극 목적, 농민군의 꿈과 이상은 “사람 사는 세상”의 건설에 있었다. 무장기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이 거사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고, 우금티는 그들의 꿈이 외세와 부패한 지배층의 야합에 의해 좌절된 곳이다. 따라서 기념일은 3월 20일 무장기포일로 제정하되, 기념식은 우금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길 바란다. 농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사가 시작된 날, 그 꿈이 좌절된 곳에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과 이상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2차 토론회 참고 사항

1. 기념일 제정의 중요성

① 동학농민전쟁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도 중세말기 근대여명기의민중운동 가운데 처음부터 반봉건과 동시에 반외세를 주창한 대표적인 민중운동. 독일농민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태평천국운동도 상제교를 창시한 홍수전의 경우 그리스도 다음가는 상제의 둘째 아들이며 만국의 참된 왕으로서 지상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주장. 서구열강도 형제국으로 지칭. 서구열강도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적대하지 않았음.

② 또한 일본이 동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저지른 사건.

따라서 그 동안도 일본 등 외국에서도 연구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활발하게 주목받을 수 있음. 때문에 기념일 제정도 엄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③ 농민혁명의 성격을 “반봉건 근대화 반외세 자주화”로 단순화하지 말자(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근대의 모습은 수 많은 농민들의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초라하다. 반외세 자주화의 문제도 변하는 세상에 따라 탄력적이어야 한다). 농민들의 꿈과 이상, 그들이 만들려 했던 세상은 어쩌면 영원히 실현할 수 없는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꿈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추구되어야 할 고귀한 꿈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일 것이다.

물론 각 지역별 계승사업과 기념행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정부나 국가에서 주도할 경우 농민군들의 꿈과 이상은 특정 정파나 세력에 의해 전유되고 왜곡되고 될 것이다. 그러기에는 농민군들의 꿈과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갈길은 아직 멀기 때문이다.

2. 백산봉기의 경우

① 전개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 결과

②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나옴. 간행본 1940, 초고본 1926년. 사실관계에 오류가 적지 않음.

③ 총대장을 전봉준 등등의 내용은 이 무렵에 전열을 정비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창의문>의 경우 유일하게 『동학사』에만 나옴. 다른 자료 어디에도 없음.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백산대회>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딘가에는 나올법하나 그렇지 못함. 전봉준 대장 운운도 공초나 다른 기록에도 한번쯤은 나올 법하나 나오지 않음. 따라서 신빙성이 떨어짐.

④ 甲午 正月 日 湖南倡義大將所 (古阜)白山

첫째, 날짜 오류

둘째 호남창의대장소라는 명칭.

3월 29일 태인 제중의소

4월 4일 법성포 이향 통문 제중의소

4월 16일 영광에서 완영유진소 통문 창의소

4월 18일 함평에서 나주공형에게 호남유생등

5월 4일 '濟衆生等義所'의 명의로 洪啓薰에게 訴志

5월 5일 무렵 김학진에게 在營會中諸生等謹百拜上書

5월 7일 營中留生等

5월 30일경는 <義所>의 명의로 강경한 내용의 포고문을 내렸다

10월16일 박제순에게 兩湖倡義軍의 領袖 全瑋準

11월12일 東徒倡義所

⑤ 1월 17일 말목장터, 백산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

2월 25일 백산으로 陣을 옮긴 뒤에도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의 조창으로 가서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懲治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요가 월경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 ‘난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

음력 2월에 이르러서는 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펴리며 완전히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방 이웃이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다(『주일공사관기록』 1)

2월 15일에는 민요가 재기한다는 소문이 낭자하였고, 2월 19일이 되면 민요가 재기되어 사망에서 無賴, 潑皮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또 고부민란의 난민들은 “음력 2월에 이르러서는 ‘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펴리며 완전히 반항의 결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방 이웃이 이 기세에 휩쓸려 찾아와 가담하는 자가 많았고 칭하기를 동학당이라 하였다”고 하여 2월말 무렵이면 각지에서 ‘난민’들이 몰려들어 천여 명 정도로 세력이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은 2월 20일경 그 여세를 몰아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봉기계획’을 실현에 옮기고자 전라도 각지로 ‘보국안민’을 위한 ‘倡義檄文’을 보냈다. 『南遊隨錄』에는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守牧之官은 治民의 道를 모르고 生貨의 본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煩劇하여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草野의 遺民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坐視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君子들은 齊聲奔義하여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

3. 황토현 전투의 경우

농민군의 투쟁 대상은 중앙권귀 축출, 전국규모의 항쟁. 이 때문에 역사적 의미도 각별함. 이점에서 감영군과의 싸움인 황토현 전투는 농민혁명을 상징하기에는 한계.

4. 전주성점령

전술적 오류. 전주성에 포위되는 결과 초래. 중앙 정부 공격에 차질. <전부화약>의 수동성.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본사업회 의견을 조심스런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음력 4월 7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군대에 맞서 최초로 승리한 날입니다. 전라감영군과 보부상의 연합부대는 봉건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농민군이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최초로 관군과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연합부대 약 2,400명을 거의 다 전멸시켰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최초이면서 최대의 승전지가 황토현이었습니다. 황토현에서 대승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그 정신이 역사속에서 도도히 흘러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황토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탑이 김재출신 학자 김상기 박사의 주도로 196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 어느 장소에 건립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적 사건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정부와 학자는 황토현 전승지를 선정했습니다. 황토현 전승이 동학농민혁명사에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황토현에 처음으로 기념조형물인 갑오농민혁명탑을 건립했으며, 이어서 전두환 정부도 14억 정도의 국비를 들여 황토현 정화기념사업을 벌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역시 전국 최초로 유물관과 사당과 전봉준 동상 등을 건립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가 쿠데타 독재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업들을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인정하고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황토현 전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셋째로, 현재 황토현에는 국비 약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미 전시관과 교육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황토현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2전국 이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혁명 발상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군부독재정권에 이어서 “국민의 정부”도 황토현 전승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황토현에 있는 전시관과 교육관 등은 인간존중, 민주주의, 자주독립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황토현 전승지가 있는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여 왔습니다. 정읍에 있는 본사업회는 올2004년에는 제3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사업회가 1980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기도 했으나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읍시와 정읍교육청과 본사업회가 작년부터 기념제를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 지역 군부대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본사업회가 주도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정읍시 고부면에 무명농민군위령탑을 건립했고, 기념제 때마다 무명농민군들에게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기념일과 기념식 장소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생일이 아닌 때에 기념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충일은 이순신 장군이 출생한 날에 애국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최초 발상지가 아닌 곳에서 기념하는 사례도 있는데, 3·1운동의 경우 천안시의 독립기념관에서 거행하며, 6·25전쟁의 경우 서울의 국립묘지 및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르며, 4·19혁명은 서울의 4·19기념탑에서 기념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광주시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 황토현전승지에서 치른다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황토현 전승일은 날짜가 명확합니다. 황토현 전승일은 5월 11일(음력 4월 7일)입니다. 백산봉기일은 학자에 따라서 3월 21일 설도 있고, 3월 25일 설도 있어서 전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황토현 전승일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섯째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은 학술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 가장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인식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알려졌고 특별법에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념일에 관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백산봉기일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점들을 고려할 때 황토현전승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토현에는 동학농민군 위패가 있으며, 기념관설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모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에 무명농민위령탑이 있습니다. 실내의 행사장으로는 교육관 등에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습니다. 전시관과 유물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황토현에서의 기념제에는 다른 어느 지역의 동학 행사보다 민·관·학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는 했으나, 정읍시민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갖고 있는 자부심과 참여도는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백산봉기일로 기념일이 지정이 된다면 기념행사장소 또한 백산이 되어야 할 텐데, 백산은 너무 협소하여 행사를 치루기 곤란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부응할지 의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사업회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음력 4월 7일)로 기념일을 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본사업회의 견해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발로된 것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업회가 발제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회는 나름대로 토론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이번에 정해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데도 이번 한번의 학술대회에서 기념일을 제정하려고 서둘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물론 동학특별법 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 국가기념일 및 국가기념식을 건의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설문조사 같은 방법을 통해 관련연구자를 비롯한 중·고교 국사교사 등 다양한 계층과 의견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리고 재단설립 기금모금운동에 동참을 촉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 9. 11.

(사)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및 회원 일동

전국적 차원에서 기념일 제정

신영우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한 세기를 넘도록 조선왕조에서 규정한 ‘兵亂’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내내 탄압이 지속되고 또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東學亂’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전근대 사회체제의 개혁을 선도하고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채 조선왕조의 관헌과 민보군이 내린 ‘匪賊’의 누명을 벗지 못해왔다. 비록 한국사학 연구자들에 의해 바르게 평가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 선언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110년만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동학농민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동학농민군 참여자 중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자, 행방불명자 등으로 고향땅에서 사라졌고, 그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거나 그들이 살던 집이 불태워져 고향 마을에서 쫓겨났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모진 박해를 받아와서 몇몇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온 사실을 밝혀오지 못했다. 참여자의 집안에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던 선조의 자랑스러운 일들을 전해듣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후손들의 증언이 아니라 진압기록에 나온 인명 지명을 되짚어서 후손을 찾아내는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과거의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사업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공로자들의 명단과 공적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서 그 동안 3대 또는 4대에 걸쳐 내려온 고난의 세월을 청산하는 일이 국가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여러 기념사업을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념일 제정은 그 첫 번째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워 자기 고장과 관련된 날을 기념일로 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전문연구자들에게 결정을 맡기자는 결의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이 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 지역의 기념사업 관계자들이 다짐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왔으나 결과는 흠족한 상태가 아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제1차와 제2차 토론과정에서 유력한 기념일로 제시된 날들은 무장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우금치전투일이었다. 오늘 발제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각 발제들은 각기 경청할만한 주장을 펴고 있다. 발제자도 기념사업 단체의 관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연구자와 기념사업 단체의 관여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의 결정이나 다짐과 다른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각기의 주장에서 전혀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학문상의 논쟁이 그 배경이 되고는 있으나 이는 처음 논의한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순수한 결정에서 많이 벗어난 사실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순조로운 토론과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의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 지역의 기념사업이 아닌 전국적 차원의 기념일로 수용될 것이다.

2. 각 발제문의 면밀한 검토

각 지역에서 전개된 사건의 중요성에 관한 주장은 3차 토론회의 발제문에 나온 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먼저 이 발제문들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발제자 또는 특정 발제자와 동일한 생각을 해온 연구자들은 기존 주장을 잠시 덮어두고 다른 주장을 편 발제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한 논지가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각 발제문의 주장들에는 상당한 논리가 들어있다. 무장기포일에는 첫 기포의 의미가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국내외의 모든 기념일은 사건이 전개된 시작을 중시해서 그 시점을 기념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중시한다면 무장기포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무장 창 의문은 그 자체가 1차 봉기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고, 호남 창 의소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을 내세워서 ‘왜 봉기했는지’ 정당성을 밝힌 표현이 있다. 또한 한 군현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개혁을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감영에서 파견된 진압군을 격파한 전승의 의미가 중요하다. 패전일을 기념일로 삼기보다 승전일을 기려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하다. 더욱이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 된 농민항쟁이 벌어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랜 박해기에도 정읍시와 황토현에서는 끊임없이 기념사업과 행사를 열어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행사를 선도한 지역이다. 이미 큰 규모의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우금치전투일의 의미도 각별하다. 공주는 군현이나 도 단위의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이 함께 성을 점령하기 위해 혈전을 벌인 곳이다. 우금치전투는 전국에서 참여한 동학농민군이 벌인 최대의 전투이고, 침략군인 일본군과 대규모 공방전을 벌여서 제국주의 세력에 완강히 저항한 세계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반론도 강력히 제시될 수 있다. 그런 반론들 때문에 일 치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장기포는 고부로 가기 위한 첫 집결지의 의미가 크고 봉기일만 기준 삼는다면 금산 등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 하며, 황토현 전투는 진행과정에 치러진 전투로서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감영군을 상대한 한 단계의 성과에 불과하고, 우금치전투는 최대의 패배로 동학농민혁명의 급속한 종료를 가져온 사건인 동시에 한 겨울에 대부대를 이끌고 고지를 공격한 지도부의 무능이 드러난 전투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에서 의미가 가장 큰 날들을 집약하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각해야 할 특정한 날을 선정하여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장이 스스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 견고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른 주장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로서 다른 주장의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3. 각 발제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발간

각 발제문과 토론 내용을 각기 정리해서 잘 구성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가 제시되고, 서로 다른 논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념일 제정에 관한 토론회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 진행하는 토론회는 역사적인 중요 사건을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역사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특별법 관련 항목 ②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 과정 ③ 무장기포일 발제문과 주요 사료 ④ 황토현전승일 발제문과 주요 사료 ⑤ 우금치전투일 발제문과 주요 사료 ⑥ 그 밖의 주요 기준일에 관한 주장과 자료 ⑦ 주요 토론내용

4.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명단 작성

기념일 제정을 전문연구자에게 위임하자고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될 것이다. 전문연구자들이 사심 없이 선정한 기념일은 전국 각 지역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해온 전문연구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 분들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의 범주는 한 편 이상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자를 망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엄밀히 논문을 분석해서 초보 단계의 소개글이나 기존 연구를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 연구

자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5. 취지서와 보고서를 전문연구자에게 전달하고 의견 수렴

전문연구자들에게 전 과정을 담은 보고서와 어떤 의견을 수렴하려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힌 취지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회수된 의견서는 종합하고, 연구자들이 결정한 기준일들을 각각 통계 내어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오늘 언론 보도 중 “329년만에 풀린 설움”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 보스턴에서 수백년 전에 제정된 규정을 바꿔서 인디언들의 시내 출입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사실상 사문화된 ‘인디언 출입 금지’ 규정이 329년 만에 정식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300년 이상이 흐르면서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은 이미 사문화되었지만 조선왕조의 법에 의해 규정된 평가를 받아왔다. 일반인의 생각 속에 아직도 ‘匪賊’이라는 평가가 유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후손들 속에도 선대가 범법자였다는 관념으로 과거의 사적을 감추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사문화된 조선왕조의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열기 위한 원대한 계획 아래 수행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위한 기념사업은 어느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학농민혁명은 현재의 행정편제 중 전북이 중심이 되고 충청도가 호응해서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함경도와 평안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당시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했고 농업 생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했던 삼남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많은 군현에서 함께 전개된 사건이었다. 당시 희생된 수많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면서, 내일의 조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수행하는 첫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전국적 차원에서 전 국민이 받아들일 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갑오농민전쟁계승사업회 조 광 환

1. 머리말
- II.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에 대한 검토
 - 1) 쟁점
 - 2) 무장봉기설의 근거 사료 분석
- III.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의 성격
- IV. 끝말

1. 머리말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는 한국근대사를 바로 보는 출발점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이전의 연구성과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정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왔으며, 100주년(1994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간의 연구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갑오농민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주체세력과 주도적 인물에 대한 연구와 이 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 명칭에 대한 문제, 동학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별 사례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연구과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전체 아래 연구방향을 새롭게 잡아나가는 것이라 생각되며 또 이를 통해 갑오농민전쟁의 전체상이 재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갑오농민전쟁 1차봉기지에 대한 연구 역시 고부와 정읍, 무장을 연결하는 지역별 사례연구의 함 범주에 속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되어왔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밝혀지고 또 기존 연구의 오류가 바로 잡히는 성과도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보다 확실한 사실구명을 바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쟁점 중 최근 새롭게 연구되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대두 된 것이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에 대한 주장이다.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에 대한 최근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戊辰 봉기설로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갑오농민전쟁의 본격적인 시점을 바로 戊辰봉기로부터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 사료로 『隨錄』, 『梧下奇聞』, 『聚語』, 『全羅道古阜民擾日記』, 『南遊隨錄』, 『林下遺稿』, 『全琿準復招』, 『全琿準 判決文』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戊辰 봉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위의 사료를 토대로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로서 무장봉기설의 논거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의 고부봉기설을 일축할만한 결정적인 사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게되었다. 다시 말해 무장봉기설을 입증할 만한 확실적인 새로운 사료의 발견이 뒷받침되기 이전에는 무장봉기설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갑오농민전쟁사에서 무장의 농민군 집결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백산봉기와는 성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무장의 농민군 집결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전라 충청도 일대 여러 고을에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집결지 내지는 출점지 중 일부이며 따라서 전체가 모인 고부(백산)의 집결을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로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재검토해봄으로서 무장봉기설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에 대한 검토

1) 쟁점

1980년 이전에는 백산봉기를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1차 봉기의 시점으로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5년 『한국학보 1985 여름호』에서 “갑오농민전쟁의 1차 농민전쟁”에서 전봉준 판결문을 들어 신용하 교수가 무장봉기설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뒤 역사학회 월례발표회(1992. 3. 14)에서 「수록」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주장한 노용필 교수를 비롯하여 “갑오농민전쟁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역시 무장봉기설을 주장한 정창렬 교수가 있다. 이 외 많은 학자들이 무장봉기설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오지영의 『東學史』에서 고부농민봉기와 3월의 무장봉기 사실을 혼돈하여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존의 학자들의 오류로 고부봉기설이 정설처럼 굳어져 왔으며, 따라서 자연히 무장포고문의 포고일자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1980년 중반 이전의 기존 학계에서 무장포고문의 포고 일자를 잘못 본 이유는 봉기지를 무장이 아닌 고부로 보았기 때문이며, 무장포고문에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그 날짜를 갑오농민군이 고부에서 봉기하여 황토현 전투 이후 무장을 점령하고 3일 동안 留陣한 후인 4월12일 경에 포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무장봉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장포고문의 포고시기를 무장 동음치에서 봉기할 당시인 3월 21일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무장포고문이 『東匪討錄』과 『隨錄』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비토록』은 1963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하여 강릉지방에서 발굴된 자료인 데 그 첫머리에 무장포고문이 실리고 그 끝에 쓰인 주기로 미루어 이는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보로 보고한 것이며 ‘초오 일술각전보(初五日戌刻電報)’라 하여 4월 5일 오후 9시경에 정부에 접수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황토현전투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수록』은 일본 京都대학 가와이 문고의 소장본으로 1992년 노용필 교수에 의하여 일반에 알려진 사료로 필사본이며 총 123장에 이른다. 여기에는 갑오년(1894) 3월부터 광무 2년(1898) 7월까지 4년에 걸친 주로 전라도 지방의 관청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3월 22일에 접수된 무장현감 趙命鎬의 보고인 “이 달 16일 무장현 冬音峙面 堂山里에 수상한 무리들 수천 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중략) 그들 말로는 일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고....”라는 기록을 토대로 무장봉기설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신용하 교수는 『全琿準判決宣告書 原本』과 『전봉준공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被告가 다시 基徒를 糾合하여 募兵하되 만일 不應者는 不忠不義된 사람이니 반드시 罰을 주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脅迫하여 基徒 四千餘名을 어더가지고 各其所有한 凶器를 가지고 糧食은 基地方民에게 徵擄하여 是年 四月上旬分에 被告가 親히 其徒를 領率하호 全羅道 茂長에서 일어나 古阜 泰仁 院坪 金溝 等處를 갈시 《東學關聯判決文集》,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p. 29.

(問) 昨年 三月에 古阜에서 起包하여 全州로 향하는 間에 幾邑을 經하였으며 幾次 接戰하였느냐?
(供) 所經邑은 茂長서 古阜로 由하여 泰仁 金溝를 經하여 全州에 達하려다가 營兵 萬餘名이 下來한다는 말을 듣고 扶安에 가서 古扶의 還至營軍과 接戰하였다. 愼鎭廈,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농민전쟁〉, 《한국학보 40》, 1985년. 가을, 일지사, p.113에서 재인용

정창렬 교수 또한 신용하 교수와 같은 사료의 내용을 근거로 무장봉기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장봉기의 날짜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기사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苗浦에서 파계생은 “그런데 急報가 하늘에서 날아 왔으니, 3월 20일 이 날 興德里의 장꾼들이 돌아와서 이르기틀, 동학군 수만명이 茂長의 屈峙를 넘어서 흥덕을 지났다고 한다. 다음날은 高敞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가고, 일부 군대는 井邑에서 古阜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沙浦를 지나 苗浦로 왔다”를 내세워 3월 20일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또 이는 충청도 沔川에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金允植의 『沔川行遣日記』 4월 4일조에서 “듣건대 湖南의 茂長 高敞 等地에서 東學 수천 명이 建旗鳴砲하고 人家를 打破하였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위의 파계생의 日記와 들어맞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지난 날 봉준은 집이 가난하고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어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방(方術)을 익혔다. 언젠가 지관을 초청하여 묘자리를 부탁하면서 “만약 크게 왕성할 자리가 아니면, 아주 망하여 후사가 끊어지는 곳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자 봉준은 탄식하면서 “오랫동안 남의 밑에서 살면서 구차하게 성씨를 이어가느니 차라리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는 오래 전부터 동학에 물들어 있었으며 묘사한 지식에 미혹되어 늘 울분에 차 있었는데, 고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의해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그리하여 그 일당 김기범, 손화중, 최경선 등과 화를 복으로 바꾸어준다는 꾀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끼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는 큰소리로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은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 봉준 등은 무장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익의 위의 책, pp.71~72에서 재인용

라고 하며 무장포고문 전문을 실었는데 이를 근거로 무장봉기설을 주장하였다.

또 朴文奎의 『石南歷史』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박문규는 1879년 고부 금동면 석지리 출신으로 그가 73세 때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기술한 기록으로 『석남역사』를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8세 때 전봉준의 서당에서 수학했음과, 1894년 고부농민봉기의 목격담도 회고해 놓았는데 특히 무장봉기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초이일에 동학군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聚衆하와 무장 고창 고부 삼사군을 위성하여 군기를 탈취해 가지고 말목 예동으로 행진을 하와 백산으로 이진을 하고 있다. 박문규의 위의 글.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인걸 교수와 『갑오동학혁명사』를 저술한 최현식 씨를 들 수가 있는데, 김인걸 교수는 『1894년 농민전쟁연구4』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무장봉기설을 부정하였다.

전봉준은 고부접주의 이름으로 고부를 들어 기포 했던 것이다. 뒤에 언급하듯이 무장에는 3월16일부터 각지의 '동학' 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는데, 동학도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기포'의 명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장기포'에 의해 본격적인 농민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명은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중략)

즉, 1차 봉기는 단지 무장에 집결한 전봉준 중심의 3,000여 주력군만이 주체가 아니라 호서의 동학조직 등이 연계된 연합군이 상징될 수 있는 것이다. 홍계훈이 '양호초토사'로 파견되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최현식 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무장봉기설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전봉준의 판결문은 전봉준의 개인적인 조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규정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즉 갑오동학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전봉준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東徒大將으로 추대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필자 불명의 「隨錄」의 기록은 무장 현감이 동학도의 집결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무렵 동학농민군의 집결지는 부안, 고부, 태인 등지에도 있었다. 따라서 무장의 집결은 전체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전봉준의 공초 275개 문항 가운데 “고부기포”란 표현은 있으나(1차 공초 2회) 무장기포라는 표현은 없다.

셋째, 백산에서 각 지역의 농민군들이 모여 비로소 동학농민군으로서의 대오를 결성했으니 이곳을 기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학농민군의 진압에 나선 관군이 고부로 출동했다는 점이다. 만일 기포지가 무장이었다면 관군이 무장으로 출동했을 것이다.

다섯째, 전봉준은 왜 무장에 머물렀던가. 원래 전봉준은 집주 일뿐 包擧를 거느리지 못했다. 공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학의 교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無東學行教之事 1차 공초) 집주로서의 조직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순화중포를 거느리기 위해서였다. 당시 순화중포는 도내에서 가장 巨包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김인걸, 최현식 두 사람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 『全瑋準判決宣告書 原本』과 『전봉준공초』외의 무장봉기설의 근거로 주장된 사료의 한계를 살펴보고 무장봉기, 그리고 백산봉기의 성격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무장봉기설의 근거 사료 분석

앞서 살펴본 대로 무장봉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무장봉기를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로 여기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 고부농민봉기가 극지적 민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봉기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분석하거나 연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상이 짙다고 본다. 이는 또 백산봉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백산봉기의 성격자체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는 무장봉기설을 주장하는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한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한 사료 중 먼저 『全瑋準判決宣告書 原本』을 살펴보기로 하자. 최현식 씨가 앞서 말한 것처럼 『全瑋準判決宣告書 原本』은 전봉준 개인에 대한 판결기록이다. 특히 “四月上旬分에 被告가 親히 其徒를 領率하호 ① 全羅道 茂長에서 일어나 古阜 ② 泰仁 院坪 金溝 等處를 갈식”라는 내용 중 ① 全羅道 茂長에서 일어나 고부로 간 것까지의 전봉준의 행적은 갑오년 3월 백산에서 농민군 총대장으로 추대되기 전의 일이며 ② 泰仁 院坪 金溝 等處를 갈식은 백산에서 농민군 총대장으로 추대된 이후의 행적이다. 따라서 전봉준이 무장에서 일어난 것은 농민군 전체의 동향 중 일부일 뿐으로 본격적인 갑오농민군 전체의 동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全瑋準判決宣告書 原本』에는 전봉준이 “9월분 태인을 발정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 하는 대도소로 삼고...”라는 기록이 나온다. 1차봉기와 대입하여 비교해 보면 태인(무장)에서 발정하여 삼례역(백산)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 하는 대도소(호남창의대장소)로 삼고...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즉 갑오농민전쟁 2차 봉기지를 태인이 아닌 삼례로 보는데 이견이 없듯이 이런 점에서 보면 1차 봉기지 역시 무장이 아닌 백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장봉기설의 또 다른 근거로 삼는 『隨錄』의 무장현감 조명호의 보고 내용을 보면

금(3월) 16일 본 현 동음치면 당산리에 어떤 수상한 무리들 수천 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며 여러 가지 풍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영리한 이속 포교들을 비밀히 보내 수탐한 즉 ① 이들은 이 고을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가 다른 고을 사람들로 이 마을 민가에 모인 동학도라 일컫는다 합니다.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했으나 16일에서 18일에 이르는 동안 수일 새 혹은 밤에 혹은 낮에 사방에서 몰려든 것이 1천여명이나 되어 모두 당산 마을 앞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②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영광 법성 두 고을의 접경 지대입니다. 그들 몇 백 명은 법성 진량면 용현리에 있는 대 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혹 각 마을의 민가에 보내 조총, 깡이, 낫, 가래, 따위를 빼앗아 갔으며 그들은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 마을 석교촌에 사는 안덕필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말쳐놓은 백미 60여 석을 빼앗고 그 집을 부셨으며, 같은 마을 송경수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 부셨다. 이 때문에 인접한 각 면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향리와 향노를 보내어 이치로 설득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도모했으나, 그들의 당장 기세가 수천 명에 이른 지경이어서 우리 고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며 ③ 그들의 말로는 일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보내온 통지에도 역시 불일한 이 고을을 떠나겠다고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지라 그 참뜻을 측량할 길이 없는 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고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나 어느 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 堂山里에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학도 1000여명이 모여들었는데 거의가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또 이들이 民家에서 조총과 농기구, 곡식 등을 거두어 갔다는 동정 등을 정탐한 상황보고로서 그 내용 어디에도 무장봉기설의 근거가 될만한 대목이 없다. 오히려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모인 농민들 거의가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② 장소가 영광과 법성 두 고을의 접경지대이며, ③ 농민군이 통지해온 바로는 불일한 다른 지역(고부 백산인 듯)으로 옮겨간다고 한 점 등에서 무장은 잠시 머무는 중간집결지의 성격을 띠며, 영광이나 법성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사전 기포가 약속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경유지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 『林下遺稿』의

甲午九月日濟行日記 상왕 31년 갑오 정월 어느날 민란이 전라도 고부군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군수 조병감의 貪虐無厭한 勒徵科外의敎... 중략... 衆民이 해산하는 고로 전명숙은 일이 성사되지 못함을 알고 砲軍오십명을 이끌고 무장동학인 손화중에게로 가... 중략... 명숙이 화중에게 가 동학배 오륙천명을 불러 모아 茂長 人川로부터 출발하여 오는데 보국안민창의 6자의 기치...

위의 기록 역시 전봉준 개인의 행적일 뿐 무장봉기가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라는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甲午事記』 “古阜民擾魁首 全明叔이가 一境 民人을 이끌고 白山에 머무지 수개월 지나 井邑 손화중과 더불어 東徒 數千을 모아 仁川江으로부터...”와 『석남역사』 박문규의 앞의 글, “四月初三日이 大禮日이다. 人心이 擾動하고 流言이 匈匈하던니 初二日에 東學軍이 茂長 林內안山골 속에서 聚衆하화 茂長 高敞 古阜 三四郡을 함성하여 軍器를 奪取해 가지고 말목 禮洞으로 행진을 하와 백산으로 移陳을 하고있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沔陽行遣日記』 4월 초 4일자 기록을 보면 “듣자하니 호남 무장 고창 등지에서 동학 수천 명이 기치를 세우고 총소리를 내며 인가를 부수었다. 모두 큰 무리로 평범한 날 쳐하기를 협오함이 있다. 양호 동학의 기운이 날로 거세져 가히 염려스럽다” “聞湖南茂長 高敞等地 東學數千名 建旗鳴砲 打破人家 皆渠輩之平日有嫌處也 兩湖東氣日熾 可憂也”

라고 하였고, 『全羅道古阜民擾日記』의 “그런데 금보가 하늘에서 날아 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 날 興德里의 장관이 돌아와서 이르기록, 동학군 수만명이 茂長의 屈峙를 넘어서 沙浦를 지났다고 한다. 다음 날은 高敞에 모여 집차 서쪽에서 올라와, 일부 군대는 井邑에서 古阜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沙浦를 지나 菡浦로 왔다”란 기록 역시 농민군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무장봉기를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로 볼 특별한 내용이 없다.

III.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지의 성격

무장봉기설을 내세우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는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이전의 민란의 한계를 벗어나 갑오농민전쟁으로 질적 발전을 하게 되는 결정적 전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1차 갑오농민전쟁의 시작을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로부터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고부농민봉기와 무장봉기 그리고 백산봉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고부농민봉기와 무장기포는 단절된 것인가.

혁명의 요인 중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성장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야말로 지상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이 자각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러한 혁명적 상황의 인식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며, 자신이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둘째로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여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오히려 사회의 전면에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16, 17세기의 봉건지주와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시민의식이었으며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역사적 주체성의 확립이다.

리처드 노이하우스는 이것을 혁명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의 분위기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이기도 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에 눈이 뜨이게 되고 더 이상 이 상황이 현재 상태로 계속될 수 없다는 감정이라고 했다. 피터 버거, 리처드 노이하우스, 《운동과 혁명》, 장석만 譯, 도서출판 한빛, 1987, p. 135.

고부농민봉기는 이러한 혁명적 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발발한 것이었다. 이 때의 주도세력은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 등이었으며, 주체세력은 고부지역의 각리리집강들과 고부 농민들이었다. 이때는 동학의 조직이 민란군의 동원이나 조직에 이용된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전봉준 공초, 問) 고부기포시에 東學이 많았는가? 冤民이 많았는가? 供) 기포 시에는 원민 東學이 비록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은 많았다.

이렇듯 一鄕 단위의 항쟁의 경우는 우선 그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으키는 것이며 이문제의 피해자가 주체, 주도세력으로 된다. 주체세력이나 주도세력은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 마을 내에 일정한 생계유지를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 위협이 가해지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생계유지장치에서 이것의 안정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저항의 목표를 세우면 위협이 가해지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변혁적, 미래지향적 저항은 구성원에게 차이를 나타내며 그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낸다. 갑오농민전쟁 이전의 변혁적 저항은 지식인 계층과 일반민중이 결합되지 못하고 각각 따로 발생하여 온다. 장봉선, 앞의 글, p.407에 의하면 “ 瑋準이 部下에게 威悅漕倉에나아가 轉運營을 擊破하고 轉運使 趙弼永을 懲治하자 하였으나 群衆은 此에 應지 않았다. 그는 民擾가 越境하면 叛亂의 稱을 받는다는 理由이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직후 농민군이 말목장터에 留陣해 있을 때 전봉준 등 주도세력이 威悅漕倉을 습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轉運使 趙弼永을 懲治하자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농민봉기가 古阜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京師로 直向하여 權貴를 盡滅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軍糧의 확보와 더불어 일반 대중의 혁명적 의식의 고양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체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한 농민 대중은 이를 따르지 않고 조병갑 축출이라는 1차적 목표가 달성되는 듯하자 그만 해산하고 말았다. 이는 농민군 주도세력과 주체세력이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니고 농민봉기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당시 고부농민이 봉기한 목표가 봉건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자체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지배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전봉준 등 주도세력의 목표는 단지 일개 고부군수에 대한 응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변혁 자체에 있었다. 따라서 고부농민봉기는 발생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에 따라 주체세력은 개량화될 소지가 있었으므로 결국 지도세력에게는 농민의 지속적 동원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다.

부득이하게 전봉준 등 주도세력은 남은 농민군을 해산시키고 茂長으로 달러가게 된다. 한편 농민들이 해산한지 십여 일도 되지 않아서 안행사 이용태가 역졸 800여명을 이끌고 고부에 난입하였다. 그는 역졸을 풀어 마을을 횡행하게 하여 부녀자를 강음하고 재산을 약탈하여 농민들을 구타하여 고기 찢듯이 포박하였다. 이는 혁명적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개량적인 농민들을 변혁적인 농민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전봉준은 전라도 무장에서 사전에 거사계획을 함께 준비한 손화중과 함께 영광, 무장 등 남도 일대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섰으며, 서장옥은 금산 일대에서, 김개남은 태인에서, 김덕명은 금구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황현, 《오하기문》, 김종인 역 앞의 책

“금산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2일 동학무리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서 군에 모여들어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3일 동학무리 3천여 명이 어떤 자는 창, 칼을 잡고, 어떤 자는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밀고 들어와 향교와 각 관아 건물에 분산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홍덕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 3천여 명이 고창으로부터 홍덕으로 옮겨와 주둔하고 있는데, 장차 불안으로 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구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들이 이달 25일 저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이 고을 원평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하였다”

이때의 주도세력은 즉 일반 부농과 리집강이 중심이 되었던 고부농민봉기 때와는 달리 전봉준과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사전 조직된 동학집주 세력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여기서 무장의 농민군 집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 충청도 일대 여러 고을에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집결지 내지는 출점지 중 일부이며 따라서 전라 충청 일대의 농민군 전체가 모인 백산봉기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학계에서 보통 고부농민봉기와 갑오농민전쟁을 '구분하는 준거로 삼는 것 중 하나는 一鄉단위의 항쟁이라는 극지적 한계의 극복여부이다. 따라서 백산봉기는 고부농민봉기가 지니는 극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항쟁으로의 확대되는 분수령이 된 것이다. 이는 백산에 모여든 농민군의 지역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백산에서 고창, 무장, 흥덕, 부안, 정읍, 태인, 금구, 김제 등지에서 농민군 약 8천명이 모여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 오시영, 영술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회옥, 정백현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 중에서 손화중으로는 무장의 송경찬, 감경중, 고창의 오시영, 오하영, 홍낙관, 임천서, 흥덕의 고영숙, 정읍의 차치구, 손여옥, 유용수가 참여했으며, 김개남으로는 태인의 김문행, 김낙삼, 이 참여하였다. 또 김덕명으로는 태인의 최경선, 금구의 김사엽, 김봉득, 김제의 김봉년 등이 참여하였다. 이 농민군들이 사전 통고도 없이 일시에 백산으로 모여들었는가?

백산에 모여든 각 읍의 농민군은 격문이나 다른 기별을 접한 이후에 모였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를 이끌던 1894년 2월 20일경 각 읍에 다음과 같은 격문을 띄우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백성을 지키고 길러야 할 지방관은 치민의 도를 모르고 자신의 직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전운영이 창설됨으로써 많은 폐단이 번극하니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차마 나라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군자는 한목소리로 의를 떨쳐 일어나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 (李復榮의 『南遊隨錄』 갑오 2월 20일)

이 격문은 전라도 모든 민중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고 전도의 호응을 구한 것으로서 농민전쟁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는 그 핵심적 내용이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나아가 중앙의 권신(민영준 등 민씨정권의 핵심세력) 제거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전쟁구상의 기본 골격은 이후 1차 봉기 기간의 각종 통문이나 창의문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4>, 1995년, 역사비평사, p.87.

이러한 격문의 내용에 공감하여 일어난 각지의 동학농민군들은 각기 해당 지역의 어느 한곳에서 집결하여 백산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들 수가 있는데 3월 21경 무장의 농민군이 무장에서 흥덕으로 나아가갈 무렵에 일부 농민군이 정읍을 거쳐 고부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가 있을 무렵에 충청도 금산의 농민군 동향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3月 23日, 日省錄 高宗 31年 3月 23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3月 23日를 보면

“高宗 31年 3月 23日(庚子) 隆武堂으로 나아가 親軍西 營兵丁의 演操를 行하다.

앞서 全羅道 鎭山郡 邑吏 金源宅 등의 侵虐이 심하여 郡民들의 怨聲이 높던 중 該郡 東學敎徒가 矯弊를 청탁, 通文을 돌리자 聚會한 者가 거의 1,000名에 이르렀다. 該道觀察使 金文鉉, 鎭山郡守 閔泳肅의 牒呈에 따라 該邑으로 하여금 衆民이 願하는 바를 矯하여 退散시킬 것을 題飭하고 民訴 10條를 成冊 上送하다. 이 날 議政府의 啓請에 따라 道臣으로 하여금 查官을 定하여 民에 干係되는 一切를 釐正하여 衆民을 曉諭 安業케 하고 通文을 돌린 渠首를 逮捕하여 梟首, 金源宅을 盤하여 依法處斷케 하다.”

을 보면 이미 백산 기포를 전후한 무렵부터 충청일대의 농민군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되었음을 알려준다.

백산이 고부농민봉기나 무장봉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호남창의대장소'란 이름의 지휘본부를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남'이라는 이름이다. 고부나 무장, 태인, 금산 등 어느 특정지역의 농민들의 봉기가 아닌 호남 일대의 농민들이 모여 衆議로 농민군 지도부를 선출하였으며, 본격적인 군사대모를 구성하고(오하기문) 또 그 봉기 목적을 담은 격문 백산 격문 중에서 “창생을 도란에서 건지고는(安民)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는 데 있다.(輔國)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反封建, 除暴救民),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反外勢, 斥倭洋倡義)”

을 발표하여 봉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외세와 더불어 횡포한 양반과 부호, 방백, 수령 등 관료 對 민중, 小吏로 彼我구분을 분명히 하여 선언하였다. 그리고 4대 名義 7) 정교, 「대한제국사」, 「사료대계 4」 p. 363에 의하면 “夏四月 湖南東徒起

時全羅道古阜郡守趙秉甲 剝削尤甚 民不勝怨恨 結黨爲擾 命以長興府使李容泰爲按察使 使之查覈 容泰玩愒時日 又欲乘勢 攘奪民財 反滋致騷 於是 鄉民推前鹿島(屬興陽)萬戶全瑋準爲魁 遂於三月二十五日 與東學徒合衆至五六萬 首蒙白巾 手執黃旗 揭以四個名義 一曰不殺人 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遂滅倭夷 燈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4대 名義 중에서도 특히 “四日驅兵入京盡滅權貴”을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지니는 극지적 한계를 분명히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 백산봉기 시 각 지역 집결현황 및 농민군 지도자

지역

장령읍

기타 장령읍

고창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임형노, 정백현

홍낙관, 홍제관, 손여옥

무장

손화중, 송경찬, 강경중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욱

홍덕

고영숙

영광

김개남

최시철, 오정운

고부

전봉준

정일서, 김도삼, 홍경삼, 정종혁, 송대화, 송주옥, 정적원, 정운집, 전동팔, 홍광균, 주관일, 주문상,

윤상홍

정읍

, 손여옥, 차치구

임정학

태인

최경선, 김낙삼, 김문행

김영하, 김한술, 김연구, 김지풍, 최영걸

금구

김덕명

송태섭, 조원집, 이동근, 유공만, 유한술, 최광린, 김응화, 김운옥, 김인배, 감가경

김제

김봉년, 김사엽, 김봉득, 유한필

조익제,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이치권, 임례방, 한진설, 허성희

옥구

허진

만경

진우범

무안

배규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윤하, 박인화, 송두옥, 김행노, 이민홍,

임춘경, 이동근, 김응문,

임실

최승우, 최유하, 임덕필, 최우필, 조석휴, 이만화, 김병옥, 문길현, 한영태, 이용舉, 이병용, 곽사희,

허선, 박경두, 한근정

남원

김흥기, 이기동, 최진학, 김태옥, 김종학, 이기면, 이창수, 김우측, 김연호, 김시찬, 박선주, 정동훈,

순창

이용술, 양희일, 오동호, 김치성, 방진교, 최기환, 지동섭, 오두선

진안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장수

김숙여, 김흥두, 황학주
무주

이응백, 윤문갈, 성순
북안

신명언, 백석구
장흥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담양

남주송, 김중화, 이경섭, 황정욱, 윤용수, 김희안
창평

백학, 유형노
장성

김주환, 기수선, 기동수, 박진동, 강계중, 강서중
능주

문장열, 조종순
광주

강대설, 박성동, 김우현
나주

오중문, 김유
보성

문장형, 이치의
영광

신성, 신란, 최영기
강진

김병태, 남도균, 윤시환, 장의운, 안병수, 윤세현
홍양

유희도, 구기서, 송년호
해남

김도일, 김춘두
곡성

조석하, 고재영, 강일수, 김문기
구례

임춘봉
순천

박낙양
전주

최대봉, 강문숙, 강수한, 송창렬, 박기준, 오두병

IV. 끝말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戊辰 봉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사료 중 어느 하나도 무장 봉기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기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봉기설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태도는 삼례집회를 비롯한 교조신원운동과 고부 농민봉기-무장집결(무장봉기) 그리고 백산기포를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장집결과 백산기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 것인가?

첫째, 무장은 백산으로 최종 집결하는데 있어 중간집결지의 성격을 띠며, 영광이나 법성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사전 기포가 약속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경유지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대중의 이동수단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도보에 의지해야 했던 그 당시 약속된 기일에 지방 관리들의 눈을 피해 백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숙식을 해결해야 할 마땅한 중간 거점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무장의 농민군 집결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전라 충청도 일대 여러 고을에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집결지 내지는 출점지 중 일부이며 따라서 전체가 모인 고부(백산)의 집결을 감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지로 보아야 한다.

둘째, 동학농민군들이 백산기포와 더불어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란 이름의 지휘본부를 두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남'이라는 이름이다. 고부나 무장, 태인, 금산 등 어느 특정지역의 농민들의 봉기가 아닌 호남 일대의 농민들이 모여 衆議로 농민군 지도부를 선출하였으며, 본격적인 군사대오를 구성하고(오하기문) 또 그 봉기 목적을 담은 격문 백산 격문 중에서 "창생을 도란에서 건지고는(安民)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는 데 있다.(輔國)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反封建, 除暴救民),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反外勢, 斥倭洋倡義)"을 발표하여 봉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외세와 더불어 횡포한 양반과 부호, 방백, 수령 등 관료 對 민중, 小吏로 彼我구분을 분명히 하여 선언하였다.

그리고 4대 名義 7) 정교, 「대한제년사」, 「사료대제 4」 p. 363에 의하면 “夏四月 湖南東徒起時全羅道古阜郡守趙秉甲 剗割尤甚 民不勝怨恨 結黨爲擾 命以長興府使李容泰爲按察使 使之查覈 容泰玩愒時日 又欲乘勢 攘奪民財 反滋致騷 於是 鄉民推前鹿島(屬興陽)萬戶全瑋準爲魁 遂於三月二十五日 與東學徒合衆至五六萬 首蒙白巾 手執黃旗 愾以四個名義 一曰不殺人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遂滅倭夷燈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4대 名義 중에서도 특히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을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지니는 극지적 한계를 분명히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것을 토대로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동향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봉준, 서장옥 등 사회 변혁세력은 최소한 1892년 삼례집회 때부터 강한 혁명의 의지를 지녔으며 주 1), 2) 참조, 1893년에 있었던 사발통문거사계획 1893년 11월 전봉준이 정읍의 손여옥, 태인의 최경선 등 농민대표 20인과 함께 古阜 西部面 竹山里 宋斗浩 家에서 봉기의 거사계획을 수립한 사건으로, 이 때 20인의 주모자 중에서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은 빠져있다.

이전에 봉기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를 놓고 의견이 달라 전봉준은 손화중 등이 아닌 조병갑의 탐학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고부농민들과 함께 189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후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를 이끌던 1894년 2월 20일경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쫓기를 촉구하였다 앞서 얘기한 李復榮의 「南遊隨錄」 2월 20일 참조

. 한편 전봉준과는 달리 혁명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한 고부농민들의 崔玄植 著. 「감오동학혁명사」 45쪽. 신아출판사. 1994. 를 보면 “전봉준은 漕倉이 있는 威悅로 진격하려 했으나, 古阜고을을 벗어나는 越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異見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하였다.

해산으로 말미암아 전봉준은 불가피하게 茂長으로 달려가 손화중을 설득하여 앞서 보낸 격문에 의해 무장 및 영광 일대에서 모여든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군을 이끌고 중간 거점인 茂長 인내(「林下遺稿」에 서는 '人川'이라 했고, 「甲午事記」에서는 仁川江이라 함)에서 일어나 약속된 장소인 백산으로 모여 들었다.

이 때 태인과 부안 등지에서도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3월 20일 이후 고부에서 시작하여 태인, 흥덕, 고창, 금구, 부안, 김제, 무장을 차례로 침범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수령들은 모두 달아났고 아전과 군교들도 뒤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적은 나라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을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직신을 요구할 뿐 부녀자나 재물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적의 기세가 점점 커졌다.

금산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2일 동학무리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서 군에 모여들어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3일 동학무리 3천여 명이 어떤 자는 창.칼을 잡고, 어떤자는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밀고 들어와 향교와 각 관아 건물에 분산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흥덕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 3천여 명이 고창으로부터 흥덕으로 옮겨와 주둔하고 있는데, 장차 부안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구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들이 이달 25일 저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이 고을 원평에서 하

룻밤을 머물렀다고 하였다.

같은 날 미사(하오 1시-3시 사이)에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이고을 두지면에 진을 치고 화약 고를 불태웠다고 하였다.

26일 술시(하오 7시-9시 사이)에 태인현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고부의 백산. 예동으로부터 이 고을 용산 화호의 신덕정으로 옮겨와 주둔하면서 총을 쏘아대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여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茂長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장소에 집결하여 백산으로 모여들었으며, 드디어 백산에서는 고창, 무장, 흥덕, 부안, 정읍, 태인, 금구, 김제 등지에서 모여든 농민군 약 8천 여명으로 군사대오를 형성하였고 또 이 때 농민군 지휘부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갑오농민전쟁의 1차 봉기의 깃발을 올렸던 것이다. <終>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서

뒤늦게나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본 사업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음력 4월 7일)로 기념일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 무능한 봉건군대에 맞서 최초로 승리한 날입니다.

전라감영군과 보부상의 연합부대는 부패 무능한 봉건정부를 상징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격파한, 그것도 2,400여명 중 수십 명만을 제외하고 거의 전멸시킨 최초 최대의 승전지가 황토현이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초로 관군과 부다친 황토현전투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황토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탑이 김제출신 사학자 김상기 박사의 주도로 196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최초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조형물을 어떤 장소에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적 사건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황토현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황토현 전승이 동학농민혁명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과거 제5공화국에서도(물론 순수한 의도와는 별개로) 14억 여원의 국비를 들여 황토현정화 기념사업을 벌여 유물관과 전봉준 동상 등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조차 황토현 전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시설물들을 이곳 황토현에 건립한 것이라 풀이됩니다. 하물며 오늘날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황토현 전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셋째, 현재 황토현에는 국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그 배경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2건국 이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혁명 발상지에 기념관을 건립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은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 에서도 황토현 전승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다른 날을 기념일로 정한다면 그 모양새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과거 군사독재시절 금기 시 해왔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활동들이 오랜기간 황토현 전승일에 맞추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1968년도 제1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 이래 1970년도까지 백산봉기일인 3월 21일에 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1971년도부터는 황토현 전승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1일로 바꿔 진행

하였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은 2004년 제3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까지 오랫동안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왔다 할 것입니다. 물론 백산봉기일에서 황토현 전승일로 기념제 행사일을 옮길 때 역시 당시 관제자와 관련연구자들의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황토현 전승일은 날짜가 명확합니다.

황토현 전승일은 5월 11일(음 4월 7일)입니다. 예를 들어 백산봉기일은 관련연구자에 따라서 3월 21일 설도 있고, 3월 25일 설도 있어 날짜가 일치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나 황토현 전승일은 시비의 소지가 없습니다.

여섯째, 기념일 제정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념식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적합한 장소와 참여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백산봉기일로 기념일이 지정된다면 행사장소 또한 백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산은 너무 협소하여 행사를 치루기 곤란합니다. 또 사람들의 참여도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황토현에는 기존의 기념관이 있고, 사우 뿐 아니라 향후 참배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며, 넓은 행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정읍시민들의 자긍심으로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행사에 대한 참여도 또한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사)감오농민혁명제승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음력 4월 7일)로 제정을 원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茂長蜂起의 의미

(제3차토론회)

배 항 섭

목 차

1. 동학교세의 확산과 전봉준의 입도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와 변혁지향세력의 활동
3.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변혁지향세력의 병란기도
4. <농민혁명 봉기계획>·<고부민란>과 동학농민혁명 기도
5. 맺음말 :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봉기의 의의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및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장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및 전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였다.

종래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에서 발발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1985년에 신용하교수에 의해 <무장봉기>가 주장되었으며, 그 이후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장봉기설>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및 전개와 관련하여 <무장봉기>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한다.⁴⁾ 특히 <무장봉기>를 1892년 말부터 1893년 4월에 걸쳐 전개된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전봉준의 거병기도, 1893년 말의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1894년 1월의 고부민란 등과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층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동학교세의 확산과 전봉준의 입도

동학은 1860년에 창도되었으나, 조정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18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히 포교되어 왔다. 그러나 1883년 공주 목천군 金殷卿의 집에 동경대전 간행소를 세운 이래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벗어나 충청지방으로 진출하면서 동학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⁵⁾ 1886년에는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서까지 교도들이 몰려들었다.⁶⁾ 교세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에 들어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다.⁷⁾

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항섭,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참조.

5) 박맹수, 1993,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참조.

6) 「天道敎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9, 이하 생략), 412쪽.

이 무렵 급격히 증가한 호남지방의 교도들 가운데는 道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변혁지향 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의 입도는 주로 무장·고창·영광·홍덕·고부·부안·정읍·태인·전주·금구 등 훗날 농민혁명 중심세력이 형성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⁸⁾ 전봉준은 동학에 입도한 이유에 대해 동학은 守心하여 충효로써 본을 삼아 輔國安民하자는 것으로, '守心敬天'이라는 教義를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⁹⁾ 또 일본영사가 취조하는 다른 자리에서도 동학에 입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輔國安民이라는 동학당의 主義에 동감하고 있던 바 ... 단지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 때문이라면 물론 동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主意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¹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봉준이 이미 동학에 입도할 무렵부터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동학에 입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공감하였고, 확산되고 있던 동학에서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마음을 바로 한 자들끼리의 '협동일치'와 '결당'의 가능성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輔國安民이라는 입장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학은 국지성과 고립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민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거기에는 마음을 바로한 자들, 곧 보국안민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할 동지들과 대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입도한 교도들 사이에는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균산주의가 실현되는 일종의 '民衆的' 理想社會를 향한 염원이 깔려 있었다.¹¹⁾ 이 점에서 동학의 輔國安民이라는 사상에 동감하여 入道한 후 동학교도 가운데 "마음을 바로한 자"들과 "협동일치"하여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려던 전봉준 등 지도부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 사이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7) 「天道教會史草稿」, 432쪽.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발견된 남원교구의 『殉教略歷』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남원지방에서 순교한 순교자에 대한 약력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894년 이전에 입도한 교도가 7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888년 1명, 1889년 11명, 1891년 21명, 1892년 11명, 1893년 14명, 1894년 13명, 1888년에서 1894년 사이로 추정되는 교도가 4명이어서, 89년 이후에 교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南原敎區, 1923, 『殉教略歷』). 또 이 무렵 전라도 "고산현에도 동학이 대단히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뮤텔주교일기』, 1892년 1월 14일).

8) 전봉준의 입도 시기는 1885년, 1888년, 1890년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鄭昌烈, 「고부민란 연구」, 『한국사연구』 48, 1885, 124쪽 참조) 전봉준 스스로는 1892년부터 동학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9) 「全瑋準供草」再招問目『東學思想資料集』(1)(이하 생략), 333쪽.

10)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11) 이외에도 동학이 빈부와 귀천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世藏年錄」, 『총서』 2, 246쪽; 「栢谷誌」, 『총서』 11, 629~630쪽; 「甲午動亂錄」, 『총서』 9, 214쪽; 「南遊隨錄」, 『총서』 3, 221쪽 참조.

한편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지도부는 농민혁명에 임하기 이전부터 ‘반봉건’ 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봉준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모자 전봉준은 이미 그의 동지인 동학당 수령 무장 손화중과 태인 김개남·최경선과 금구 김덕명 등과 의논이 많았었고, 고부인민 幾個人과도 약속이 있었으며, 기타 경향 각방면으로도 志氣相合處에 많은 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를 바로잡고 세상을 혁신하기 위하여는 어느 당파거나 어느 계급이거나를 물론하고 구애가 없이 맞손을 잡고 일을 할 작정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해서 일찍 倡義文一通을 草하여 공공연하게 세상에다 전파하였던 것이다.¹²⁾

또 “儒林側(으로 奇字萬 등-이 부분은 썼다가 지웠음 : 필자)과 襦負商 등이며 油·鑪·宕糖商 等이며 술장사派까지라도 서로 서로 連絡을 지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 이와 같이 전봉준은 반봉건적 과제와 함께 반외세적 과제를 의식하면서 일찍부터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연합을 構想하고 있었으며, 서울로 가서 정국의 추이와 외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또한 전봉준은 정치적 성향 면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던 대원군과도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동학은 1880년대 중반 무렵부터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벗어나 충청·경상·경기·전라지방 등 평야 지대로 진출하면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동학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동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野心’을 펴려던 변혁지향 인물들과 ‘道 보다는 난리’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 대거 입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야심을 품고 草莽에 숨어있던 자”들과¹⁴⁾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리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던 민중들이 동학조직을 매개로 결합해 가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동학 역시 ‘無爲而化’사상에서 드러나듯 정치의식은 결여되어 있었으나, 동학은 민란이나 변란에 비해 한층 체계적인 조직이나 이념을 갖추고 있었다. 변혁지향 세력은 동학 조직을 매개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의 지향을 결집하고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均產主義에 입각한 이상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변혁논리를 모색해 간 것이다. 변혁지향 세력은 1890년대 초반에 들어 동학을 포착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었다. 교조신원운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와 변혁지향세력의 활동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뒤부터 동학교단 내의 일부 인물에 의해 신원운동이 준비되어 갔다. 1892년 10월 17일경 서인주와 서병학은 공주에서 교조의 신원을 위한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¹⁵⁾ 동학교도들은 당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던 충청감사 趙秉式에게¹⁶⁾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를 제출하였다. 이어 11월 3일에는 최시형이 교도들을 삼례에 집결시켰

12) 『東學史』(초고본), 『총서』 1, 451쪽.

13) 『동학사』(초고본), 『총서』 1, 455쪽.

14) 『在釜山 一等領事 加藤增雄의 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92~93쪽.

15) 『天道教會史草稿』, 439쪽 ; 『東學書』, 57~60쪽 ; 『大先生事蹟』, 『총서』 27, 237쪽 ; 『時間記』, 『총서』 2, 175~176쪽. 『時間記』에서는 이 때 모인 동학도의 수가 1,000여 명이었다고 하였다.

16) 『天道教會史草稿』, 436쪽.

다. 삼례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영에 두 차례의 의송을 올렸다. 충청 전라감사에게 올린 글에는 서학에 대한 반대, 日商의 미곡유출에 따른 폐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요체는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동학교도에 대한 侵奪 금지 등 종교적 요구에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공주 삼례집회 어디에서나 반의세와 관련된 주장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한편 삼례집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全瑋準이 이때부터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한다는 점이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¹⁷⁾ 삼례집회에서 訴狀을 작성한 것은 徐丙鶴이었고 ‘魁首’는 徐仁周였다. 서병학에 의해 소장이 작성되기는 했으나, 탄압이 두려워 訴狀을 告呈할 마땅한 사람이 없던 차에 자원해서 나선 인물이 바로 右道の 전봉준과 左道の 柳泰洪이었다.¹⁸⁾ 1892년에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은 이전까지만 하여도 동학교단 내에서 두드러진 위치나 비중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삼례집회에서 전라감사에게 訴狀을 제출하는 대표를 자임함으로써 그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때 全瑋準이 金開南·金德明·孫化中 등과 함께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교단의 지시와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茂長郡守가 동학교도들로부터 빼앗은 돈 1,000냥을 돌려 받기 위해 수백 명을 이끌고 무장을 향해 갔다. 그러나 이들이 금구 원평에 도착했을 때 茂長의 座首와 吏房이 와서 돈 1,000냥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비로소 해산하였다 한다.¹⁹⁾ 이는 이미 삼례집회 시기부터 훗날 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김덕명 등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또 독자적인 반담학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경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변혁지향세력의 병란기도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단시키겠다던 감영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최시형은 1892년 12월 6일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都所를 차렸다.²⁰⁾ 이어 姜時元·孫秉熙·손천민·金演局·朴寅浩 등이 1893년 2월 8일 시행된 세자 탄생 축하 과거시험을 치러 가는 科儒로 가장하고 상경하였다.²¹⁾ 상경한 교도 대표들은 서울 南部 南小洞 崔昌漢의 집에 奉疏都所를 정하고 상소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였다.²²⁾ 이어 2월 10일에 致誠式을 행한 다음날인 2월 11일 朴承浩를 疏頭로 한 교도대표 40명은 광화문으로 나가 상소문을 올렸다.²³⁾ 상소문에는 “敬天正心 保國安民”이라는 8자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²⁴⁾ 상소문의 내용에도 외세의 침탈이나 서학에 반대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반면 충청·전라 감영에 올린 글과 비교해 볼 때 동학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많고, 동학의 독자성과 유불선에 비해 오히려 동학의 교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7) 발굴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全北日報』, 1995년 3월 21일자 참조.

18) 崔炳鉉, 1924, 『南原郡東學史』.

19) 南原郡宗理院, 1924, 『宗理院史附東學史』.

20) 『天道敎會史草稿』, 446쪽; 『本敎歷史』, 323쪽.

21)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 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121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51쪽;

『清菴權秉惠先生自敘傳』, 『韓國思想』, 15, 1977, 330쪽 참조.

22) 『天道敎會史草稿』, 449쪽.

23) 『東學書』, 91~97쪽.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11쪽;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451쪽.

교도들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밤낮으로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격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13일 司謁을 통해 구전으로 “귀가하여 安業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는 국왕의 교지가 하달되었다.²⁵⁾ 이에 따라 최시형은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2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대부분의 교도들은 해산하여 하향하였다.²⁶⁾

한편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한층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교단 측은 “귀가하여 安業하라”는 국왕의 말을 전해 듣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교단지도부와 지향을 달리하는 세력들은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京鄕 각지에서는 대대적인 첩왜양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 복합상소가 결정되는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돌렸다. 창의문은 전라도 일대 각 군의 衙門에 나붙었으며,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지에서는 같은 시각에 방문이 붙었다.²⁷⁾ ‘창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창의’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斥倭洋이 그 핵심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때부터 창의문이 나붙은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을 비롯한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과 전봉준 사이에는 일정한 조직적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어 한 달 정도 뒤에는 전라도 교도들로 추정되는 일군의 세력은 삼례에서 두 번째로 집회를 열었다(이하 제2차 삼례집회).²⁸⁾ 2월 8일 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경 전라도 參禮에서는 교도 수천 명이 모여 전라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보낸 것이다.²⁹⁾ 제2차 삼례집회는 1892년 11월의 제1차 삼례집회 직후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무장 군수 등을 상대로 반탐학운동을 벌였고, 1893년 1월 10일 경에는 전라도 일원에 ‘창의문’을 게시하였던 全瑋準, 그리고 金開南·孫化中·金德明 등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삼례에 모인 동학교도들이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릇 사람 노릇하기에는 어려움이 세 가지 있다. 절개를 세우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힘을 다하여 정성스러이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자식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정조를 굳게 지키다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지어미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生이 있으면 死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고 有事하고 無事함은 운명이 정해 놓은 바이다. 무사하고 안락한 때에 태어나 충효의 도리를 즐기는 것과 일이 있어 어려운 때에 태어나 충효에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고 자식 노

25) 『天道教會史草稿』, 452쪽.

26) 『海月先生文集』, 『총서』 27, 238쪽.

27) 『南原郡東學史』, 1924. 또 전봉준은 창의문을 돌린 후 복합상소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봉준은 복합상소에 참여하지 않고 전라도에 남아 첩왜양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28) 1893년 2월에 열린 두 번째 삼례집회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李離和, 1989,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역사비평』 7이다.

29) 이 사실은 李復榮, 『南遊手錄』 癸巳 3월 8日, 『총서』 3, 126쪽; 金在洪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日, 『총서』 2, 274쪽; 金允植, 『續陰晴史』 上, 3월 8일조, 258쪽; 『天道教會史草稿』, 453쪽; 『天道教書』, 『총서』 28, 226쪽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學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 『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羅巖隨錄』 癸巳 2月, 『196. 東學黨與完伯書』; 『미국외교문서』(국방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에는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뜻하기의 어렵고도 쉬움이고 쉽고도 어려움이다. (중략) 금일 倭賊과 洋賊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극심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壬辰年의 원수와 丙子年의 치욕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동방 삼천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이 모두 금수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오백 년 宗社가 장차 망하게 되었으니, 仁義禮智와 孝悌忠信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물며 저 왜적은 오히려 悔恨의 마음을 가지고 화근을 품고서 그 독기를 마음대로 뿌리고 있어서 위태로움이 조석에 달렸다. (중략)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한다. 앞드려 원한 건대 각하도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忠義로운 선비들을 선발하여 함께 輔國하기를 간절히 바란다.³⁰⁾

이때 동학교도들은 척왜양 격문을 전라감사에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각 읍에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삼례의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53개 군에 동일한 내용의 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³²⁾

이 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우선 보은집회가 열리는 3월 11일 보은 관아 문 밖에 걸린 패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³³⁾ 둘째, 이전에 충청감사와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과 비교해 볼 때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셋째, 발신자의 명의에서도 처음으로 “東學倡義會所”가 등장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輔國이 강조되고 倭夷와 洋夷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었다는 점이다. 공주집회에서도 西學에 대한 반대, 倭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반대는 있었으나, 왜양 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그를 직접 쳐부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없었다. 또 보은에 都所를 차린 직후인 1892년 12월에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나 복합상소문에서도 동학을 서학과 동일시하여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였지만, 외세 그 자체에 대해 ‘척왜양’을 명시하며 반대하지는 않았다. 격문 내용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동학교도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또 동일한 내용의 격문이 보은집회에서도 게시되었다는 점은 이때부터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세력에 의해 척왜양운동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척왜양운동은 전라도 삼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복합상소를 전후한 시기 서울의

30) 경상도 예천의 유생 朴周大의 일기인 『羅巖隨錄』(『羅巖隨錄』 癸巳 2月條, 「196. 東學黨與完伯書」)과 「유평문서」(『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등에 실려 있다. 또 1893년 4월 12일(음력 2월 26일) 조선주재 일본 변리공사 大石正己가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에게 보낸 외교문서와(『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舉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 4월 20일(음력 3월 5일) 조선주재 미국 변리공사 Augustine Heard가 본국에 보낸 외교문서에도[「미국의교문서」(국방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자] 『羅巖隨錄』이나 「유평문서」에 실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31) 「東學文書」 『총서』 5, 66~69쪽.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일조, 『총서』 2, 274쪽. 또 “밤중에 방문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월 9일 밤에 붙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재홍은 동학교도들이 밤중에 방문을 붙이고 列邑에 民擾를 선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였으나, 척왜양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가상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김재홍은 동학교도의 방문에 倭와 洋夷 뿐만 아니라 淸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3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126쪽.

33) 다만 중간 부분에 나오는 “壬辰年의 원수와 丙子年의 치욕”이라는 구절이 <보은관아통고>에 는 “壬辰年의 원수와 丙寅年의 치욕”으로 되어 있다[주 113) 참조].

외국공관 등에도 첩왜양 방문이 붙었다. 우선 복합상소 직후인 2월 14일 밤 서울 Gifford 학당의 문에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붙었다. 이어 2월 18일에는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 서교를 비판하는 방문이 붙었다. 내용의 요체는 역시 유학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라는 점을 통박하는 것이며,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은집회가 열리기 10여 일 전인 3월 2일 오후 2시경에는 일본공사관 벽에도 斥倭斥洋을 주장하는 패서가 붙었다. 일본공사관에 게시된 榜文은 서양인들에게 통고한 내용과는 달리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2월 20일을 전후하여 프랑스공관에도 西敎를 배척하는 방문이 게시되었다고 하며,³⁴⁾ 복합상소 직전인 2월 7일에는 동학교도들이 서학을 배척하는 격문을 서양 영사관 앞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³⁵⁾ 또 『東京朝日新聞』에는 첩왜양 방문이 학교나 선교사의 집, 외국 공관 이외에도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중요한 지점에도 붙었다고 하였다.³⁶⁾

첩왜양 방문은 복합상소 직후부터 서울에 나붙은 이후 보은집회 이전까지의 시기에 지방 곳곳에도 나붙었다.³⁷⁾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 제2차 삼례집회 무렵 용담관아에 붙은 방문 이외에 현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3월 6일 밤 부산성문에 나붙은 통문이다.³⁸⁾ 그 내용은 전라감영에 보낸 글이나 용담 관아에 붙은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³⁹⁾

이상과 같이 첩왜양운동은 1893년 1월 10일경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창의문>을 띄우면서 그 단초를 보였고, 2월 8일 동학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 개최된 전라도 삼례집회와 복합상소 직후부터 경향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삼례집회를 개최한 세력이나 이와 연계된 인물에 의해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 각지에서 전개된 첩왜양운동은 단순히 방문을 붙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첩왜양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병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복합상소 직전에 나타난 일부 교도들의 언행이다. 『天道教會史草稿』에는 상경한 교단 대표들이 남소동 최창한의 집에 奉疏都所를 정하고 절차를 논의하던 중 동학교단의 대표들이 상경한 2월 8일보다 7일 앞선 2월 1일(吉日)에 상경하였던 서병학이 “意를 變하여 隊兵과 協同하여 政府를 鑒打”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등이 반대하였으나 서병학이 듣지 않았다고 하였다.⁴⁰⁾ 이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모색해오고 있던 교단내의 변혁지향 세력이 병란을 기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주목된다. 또 최시형도 1898년 5월에 체포된 뒤

34) 『續陰晴史』 上, 癸巳 2月 24日, 257쪽. 그러나 프랑스 공관에 첩왜양 방문이 게시되었다는 기록은 다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張泳敏, 『東學農民運動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5, 157쪽 참조).

35) 『東學道宗釋史』, 317~318쪽. 손천민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손천민이 상경한 것은 2월 8일이었다. 『東學道宗釋史』는 손천민 계열이 필사한 것이다(朴孟洙, 『崔時亨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 논문, 1995, 192쪽 참조). 따라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내용은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 붙은 것과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글이 동학교도 측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36) 『東學黨事件의 顛末』, 『東京朝日新聞』, 1893년 4月 29日(趙景達, 1998, 『異端의 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00쪽에서 재인용); 『大阪朝日新聞』, 1894년 6月 27日, 『叢書』 23, 67쪽.

37) 金允植, 『續陰晴史』 上, 3月 26日條, 261.

38) 보은집회가 시작되는 3월 11일 아침에는 보은에 인접한 靑山의 관아문에도 방문이 붙은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白石書牘』, 『叢書』 3, 305쪽).

39)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13 釜山城門へ 東學黨通告文貼付に 付報告, 471~472쪽.

40) 『天道教會史草稿』, 449쪽.

복합상소 당시의 정황에 대해 “그들의 청원에 대한 (국왕의-필자)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 중 한 사람이 ‘우리들이 군인으로 변장하고 먼저 閔泳駿의 집을 공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였던 대중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라고 하였다.⁴¹⁾

『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이때 동학교도들 가운데는 “일(복합상소)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수도 漢陽을 불태우는 大事를 일으키고, 지방의 黨員도 호응하여 대혁명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여⁴²⁾ 복합상소 이전에 모종의 거사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복합상소>에 즈음하여 동학교단에서는 그 준비를 위해 서병학을 일주일 정도 미리 올려보냈다. 그러나 서병학은 <복합상소> 준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던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개혁하려는 거사계획을 누군가와 사전에 밀모하여 두고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상경한 동학교도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라도 삼례와 충청도 일대에서는 서울에서 밀의한 병란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복합상소 직전부터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정부나 官側에 보낸 이전 시기의 글과는 전혀 달리 척왜양을 주조로 한 통문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고 각 읍 관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반 인민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보냈다. 이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주도면밀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거사를 앞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무렵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왜양을 물리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는 점이다.⁴³⁾ 그 요체는 “금수같은 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4개조의 행동강령을 부기하였다.⁴⁴⁾

이러한 병란 기도는 1893년 3월에 개최된 보은 금두집회에서도 이어졌다. 최시형은 1898년 3월에 체포된 뒤 보은집회 당시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1)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june 1898), pp.234~235. |

42) 『東學黨의事』 『東京朝日新聞』, 1893년 4월 18일(趙景達, 앞의 책, 105쪽에서 재인용)

43) 『東學文書』, 76~85쪽. 여기에는 “東學揭榜”, “東學掛榜”, “東學榜”이라는 제목으로 된 같은 내용의 방문이 3종류가 실려 있다. 방문이 게시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방문들은 복합상소 직후 일련의 척왜양 방문과 같은 시기에 나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東京朝日新聞』과 『大阪朝日新聞』에서 남대문·동대문 등 요처에 나붙었다고 한 척왜양 방문 가운데는 이러한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주 16] 참조.

44) 『東學文書』, 76~85쪽. 4개조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 근래 바깥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위로는 종사가 위태롭고 아래로는 (오랑캐의) 財色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비할 데 없이 통탄스럽다. 기필코 쓸어 없애버릴 따름일 것.
- ② 하늘을 받들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냄에 있어 장정을 가려 뽑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잡지 않음으로서 위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래로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인민들은 안심하고 樂業하라. 혹시 충성을 본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合力할 것.
- ③ 불효하고 不忠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악한 자를 능멸하는 자는 도적임이 분명하니 우선 그를 討罪할 것이니, 개과 천선하여 후회하지 말 것.
- ④ 서학에 입도한 사람은 동방에서 태어나고 동방에서 자라 國君의 땅을 갈아먹고 선왕의 법을 따랐으면서 그 이름을 오랑캐의 나라에 붙이고 그 마음을 오랑캐의 땅에 두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복무하니 어떤 마음에서인가? 매우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본래대로 돌아와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

나중에 정부에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자, 교도들 가운데 몇 명 - 열 명 정도가 채 안되는 - 이 斥倭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보은에 모여 반란을 시작하고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 제의는 반대에 부딪혔고 우리가 취할 여러 가지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선유사 어윤중이 와서 해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였다. 그의 두 번째 효유에 우리는 해산하였다.⁴⁵⁾

이것은 보은집회 당시 교단 내부에서는 척왜양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자는 쪽과 그에 반대하는 쪽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척왜양 구호가 전면내 내걸린 보은·금구집회에서도 집회를 주도한 변혁지향 세력의 진정한 목적은 척왜양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축출, 나아가 민씨 정권의 축출과 정부의 개혁에 있었다. 또 집회에 참가한 일반 교도들의 일차적 목적도 척왜양이 아니라 관리들의 침학 등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억압하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반대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 어윤중은 “동학의 무리는 이미 八路에 만연하여 거의 수만이 넘는다. 겉으로는 洋夷에 假託하고 안으로는 思亂을 품고 있다”라고 하였다.⁴⁶⁾ 동학교도들이 전면내 내건 척왜양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목적은 탐관오리와 부패한 민씨 척족을 축출하여 정부를 개혁하려는 데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어윤중은 보은집회 당시에 선무사로 내려와 동학교도들과 수 차례나 만나 직접 대화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그는 교도들의 요구와 주장, 집회의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변혁지향 세력은 이미 복합상소 직전부터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하”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⁴⁷⁾ 또 전봉준도 “간악한 관리를 징치하고 보국안민을 이루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全羅一道의 탐학을 제거하고 賣爵하는 權臣을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 一體가 될 것”이라고⁴⁸⁾ 하였듯이 ‘반탐학’·‘반부패’ 문제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⁴⁹⁾

물론 집회에 참석한 교도들과 일반 민인들은 倭洋이 나라의 심복에까지 들어와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매우 분개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利源을 빼앗아가는 外夷를 온 나라의 義旅와 함께 협력하여 물리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⁵⁰⁾ 그러나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할만한 구체적인 침략행위가 가시화한 상황은 아니었다.

개항이 된 후에도 처음에는 일본인과의 접촉이 개항장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內地行商이 본격화하는 18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상인들의 활동 무대도 내륙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접촉범위도 그 만큼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인 사이의 충돌도 더욱 잦아졌다. 특히 日商에 의한 미국 유출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쳐 일부에서는 일상의 미국유출에 대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정도였다.⁵¹⁾

45)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 pp. 234~235.

46) 『聚語』, 116쪽. 농민혁명이 발발 한 후이기는 하지만, 조정에서도 동학교도들의 척왜양 주장에 대해 “왜와 양을 攘斥한다는 명분을 빌어 수령들의 貪暴을 미워한 것이 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고 하여 그것이 명분에 불과하다고 파악하였다(1986, 『東匪討錄』,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년의 農民戰爭篇 1』, 驪江出版社, 313쪽).

47) 『天道敎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2, 143쪽.

48) 『全瑋準供草』, 再招問目, 328쪽.

49) <농민혁명 봉기계획>이나 고부민란 단계에서는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인 구호가 전면내 제기된다. 그리고 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茂長布告文>도 ‘반봉건’적 측면에 압도적으로 경도되어 있었다. 또 제1차 농민혁명 전기간을 통하여 제시된 구호나 행동에도 ‘반외세적’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봉건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50) 『聚語』, 123쪽.

따라서 교조신원운동 시기에도 이에 대한 반대요구가 제기되었다.⁵²⁾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몇 명의 일상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또 농민군들도 통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항장 밖에서 행해지는 潛商·밀매행위를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⁵³⁾ 각지에서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다. 그러나 척왜양 구호는 십중팔구 반역자로 몰리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전국차원의 의병항쟁의 대열에 뛰어들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구호는 아니었던 것이다.⁵⁴⁾ 이에 따라 척왜양을 내걸고 기도한 병란은 실패로 끝났고, 전봉준 등 지도부는 전국적 항쟁을 위한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게 된다. 1893년 말에 나온 <사별통문 거사계획>은 바로 그러한 모색의 결과였다.

4. <농민혁명 봉기계획>·<고부민란>과 동학농민혁명 기도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봉준은 조정의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민란의 확산을 통해 전라도 전지역의 봉기, 나아가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구상하고 추진한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농민혁명 봉기계획>과 고부민란이다.

먼저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알려주는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⁵⁾

고부성 격포 군수 조병갑 효수 스
一. 古阜城을 擊破호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군기총 화약고 점령 사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군수 으유 인민 침어 탐이 격징 사
一. 郡守의게 阿諛호야 人民을 侵漁호 貪吏를 擊懲할 事

전주영 함낙 경스 직형 스
一. 全州營을 陷落호고 京師로 直向할 事

위의 결의사항을 볼 때 그 대체적인 구상은 조병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킨 다음 인근 읍의 '난민'을 규합하여 전주영을 함락하고, 여기서 전라도 일대의

5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0쪽 참조

52) 이 책 제4장의 주 46) 참조.

53) 『全珠準供草』 再招問目, 340쪽. 또 전주화약 직후 농민군들이 제시한 <폐정개혁요구안>에도 각국의 상인들에게 서울과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는 상행위를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鄭喬, 『大韓季年史』 『총서』 4, 372~373쪽; 『東匪討錄』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年の農民戰爭篇 1』, 驪江出版社, 360~364쪽; 金允植, 『續陰晴史』 上, 323~325쪽; 『南遊隨錄』 甲午 5月 28日, 『총서』 3, 215~216쪽 참조).

54) 수없이 다발한 민란에서 외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구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개항 이후에도 세계자본주의의 침략이 거기에 대응하는 민중에게 새로운 세계관이나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왜 정서'가 팽배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이 구체적인 침략행위와 결부될 때 광범위한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면적 '반왜 항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잠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 의한 경복궁 침입 이후에 일어난 2차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55) 『전봉준자료집』 『나라사랑』 15, 1974, 134~135쪽.

변혁세력을 규합하여 서울로 직향하여 탐관오리를 축출한다는 구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부민란에서는 제4항에 제시해 놓은 바 전주성의 함락과 京師直向을 기도한 바 없다. 그러나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봉기계획은 이미 일찍부터 전봉준의 머리 속에는 구상되어 있었다. 전봉준은 동학에 입도한 동기에 대해 동학에서 “결당하는 것의 중요함”을 보고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輔國安民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⁵⁶⁾ 이미 동학에 입도한 당시부터 전봉준의 머리 속에는 ‘보국안민’의 대업이 구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전봉준은 이미 1893년 1-2월무렵부터 일녕의 “반란”을 기도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경사로 직향하는 일이 당장 실현되지 못했지만,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은 <농민혁명 봉기계획>에 나타난 바 ‘반란’의 순차적인 전개에서 최종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위의 봉기계획은 고부민란에서 당장 기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전국적 항쟁은 <농민혁명 봉기계획> 이전 단계부터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간에 구상되어 있었으며, 고부민란은 그러한 구상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보은·금구집회에 비추어볼 때 <농민혁명 봉기계획>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보은·금구집회에서 전면에 제기되었던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 성격의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던 모습이 사라지고 고부라는 특정 고을을 기반으로 교단 지도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운동을 추진하려 한 점이다.

‘輔國安民’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추진 구상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는 곧장 서울로 가서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혁명 봉기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고부성을 점령하고 이어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 서울로 쳐들어가는 경로로 바뀐다. 이 점은 변혁세력의 의식과 조직 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보은·금구집회를 겪은 이후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간에 지역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변혁지향 세력에게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었음을 말한다.

한편 <농민혁명 봉기계획>과 고부민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은·금구집회까지도 지도부와 중민들 간에는 의식면에서 적지 않은 간극이 있었다. ‘斥倭洋倡義’가 전면에 제기된 것도 집회 대중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민란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변혁지향 세력의 노력과 관련이 있었다. <농민혁명 봉기계획>과 고부민란 단계에 와서 중앙권력을 투쟁대상으로 삼는 전국차원의 항쟁을 기도하면서도 ‘척왜양’구호를 탈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을 거치는 동안 거기에 참여했던 교도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장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조신원운동은 집회에 참가했던 대중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공주·삼례집회에서는 각지에서 모여든 교도들이 직접 감사와 담판하였으며, 복합상소에서는 국왕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보은·금구집회는 복합상소에서 제시한 국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56)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척왜양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일으킨 전대미문의 '대규모시위'였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민란과는 격을 달리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은 각지에서 모인 민중들의 경험의 집단적으로 교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바뀌어져 가는 세상을 체험하는 자리였다.⁵⁷⁾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혁주체로 자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변혁지향 세력의 의식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변혁주체로서의 자각을 결여하고 있던 교도들에게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⁵⁸⁾ 이는 곧 이전까지는 王化의 대상, 牧民의 대상이라는 의식, 혹은 민란에서 보이듯 王法을 어기는 지방관에 반발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내외의 적을 제거함으로써 宗社를 지키고 聖道를 밝히는 주체임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고부일대에서 '도보다 난리'를 이야기하며 지역적 연계를 이루어 가던 교도들은 이미 '세상이 바뀌기를' 단순히 염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변혁주체로서 자각해 나가고 있던 '민중'들이었다. 힘으로 대항하자는 의식과 그를 통한 지역 간의 조직적 연계는 그 표현이었다.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濟世安民'의 뜻을 다져나가는 한편⁵⁹⁾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라도 일대의 지도자급 인물들=동학의 변혁지향 접주들 간에 교류해 나가던 전봉준 등이 척왜양운동 단계와는 조직과 구호 면에서 양상을 전혀 달리하는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구상한 것은 이와 같이 변혁지향 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조직과 의식 양면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고부민란이었다.

고부민란은 익산군수로 전임되었던 조병갑이 1월 9일 고부군수로 仍任한⁶⁰⁾ 직후인 1월 10일에 일어났다.⁶¹⁾ 민란 초기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과 공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부민란은 다음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병갑의 탐학이 극심해짐에 따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고부민은 전주 감영에까지 정소하였으나 조병갑의 탐학을 불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부민들 간에는 자연적으로 민란발발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되었다. 이때 민란을 일으키기 위해 모여든 고부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하자 이미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세워두고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의 연계 등 그의 실현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던 전봉준이 아직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 합의를 보지

57) 이러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접촉, 교류하던 시장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주목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서촌의 어민과 동촌의 농민이 鹽魚와 곡물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하루는 관습을 달리하는 각읍의 인민이 서로 모여 정치적으로 위협하다는 소문, 收稅官吏가 가혹하다는 불평, 怪力亂神에 관한 마을의 이야기, 祭式葬禮, 혼례의 풍속, 가족의 안부, 생활상의 잡사 등으로부터 혹은 某村에는 천하의 대학자인 某 진사가 있다거나, 某邑에서는 마부와 외지인의 싸움이 있었다거나, 某鄉에서는 유령이 나왔다는 등 다양한 인민들이 서로 하루 동안 잡담을 하며 각읍의 교제, 각자의 친선을 맺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교의 一機關임을 알아야 하고(하략)"[菊池謙讓, 1896, 『朝鮮王國』, 民友社(東京), 243쪽]. 시장이 가진 민중운동의 場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鶴園裕, 1990, 『李朝後期民衆運動の二・三の特質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참조.

58) 전봉준의 경우 압도할 때에 이미 보국안민의 핵심으로 왜양이라는 외부의 적 뿐만 아니라 조정의 奸黨을 척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고, 그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듯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상대적으로 변혁지향 교도들도 아직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였다고보다는 다만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59) 전봉준은 스스로 자신은 "安民하는 데 간절하여 貪虐을 보면 不勝憤歎"한다고 하였고(『全瑤準供草』, 再招問目, 329쪽), "세상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기에 慷慨하여 한번 濟世하기 위해"(위와 같음, 332쪽) 舉事하였다고 밝혀 '濟世安民'을 향한 그의 뜻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60) 『日省錄』, 高宗 31年 1月 9日.

61)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54쪽.

못한 등 준비가 미흡하였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농민혁명 봉기계획>에서 구상한 바의 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함으로써 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민란의 양상도 여느 민란과 다른 점이 많았다. 우선 죽창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동헌을 습격하였다는 기록도 그러한 분위기를 대변한다. 또 사발통문의 서명자 명단에 태인의 최경선·정읍의 손여옥 등 전봉준과 가깝게 지내던 인근 읍의 동학 접주들이 가담하였다는 점도 여느 민란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관아를 점령하여 탐묵한 이서배를懲治하였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가지는 등 ‘난민’들로서는 요구하던 바를 일정하게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민란이 장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속된 것도 바로 전봉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⁶²⁾

14일까지 가담한 사람이 15개 마을 1만여 명이 이르자 장정을 선발하고 노약자는 귀가시켰으며, 각 촌락마다 5명의 대표가 이들을 통할하였다. 1월 17일 난민들은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가지고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서 주둔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고,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⁶³⁾

말목장터로의 이동과 백산성의 축조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란이 발발한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인근 읍의 호응이 없자 일단 장기전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 둘째, 전봉준 등 지도부는 이미 대규모의 봉기로 돌입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 근거지로 백산을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란이 전봉준의 뜻대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고부민란의 발발은 곧 ‘경사직향’을 최종 목표로 한 <농민혁명 봉기계획>의 착수를 의미하였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엇보다 인근읍의 지도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발하였기 때문에 이웃 읍의 호응도 받지 못하였다.

<全琿準實記>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고부민란이 끝난 다음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간 데 대해, “부하를 잃은 (全)琿準이 몸소 방문하여 구원을 청함에 (孫)化中은時機尙早를 역설하였으나 전씨의懇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⁶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봉준의 요청에 대해 손화중이 거부나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時機尙早’라는 의견을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이들간에 이미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든 봉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봉기에 필요한 조건문제 등과 관련하여 봉기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부민란이 일어났음을 동시에 보여준다.⁶⁵⁾

따라서 고부민란이 일어나자 태인의 최경선·정읍의 손여옥 등 인근 읍의 인물들도 일부 참가하였지만,⁶⁶⁾ 조직적인 호응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隣郡 도처에서 동정을 표하여 대체로 악평하는 자는 없었”으나, “아직 자진하여 이들에게 합세하여 자기 머리 위의 악정을 없애려는 자”도 없었던 것이다.⁶⁷⁾

또 ‘난민’들과 지도부 사이에는 아직 의식상의 간극이 있었다. 관아를 점령한 후 창고의 곡

62)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54쪽.

63) 張奉善, 위와 같음.

64) 張奉善, 앞의 글, 354쪽.

65) “(전봉준이) 고부민란에 달려가기 몇 일전 서너 명이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인물들로서 후에 알고 보니 모두 동학당의 중요인물이었다”는 菊池謙讓의 탐문내용도 고부민란 발발 직전까지도 전봉준과 인근 동학접주들 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菊池謙讓, 앞의 책, 171~172쪽).

66) 甚至於悖議之輩 言壽張與訛旁嗾隣邑浮浪之徒(『日省錄』, 高宗 31年 2月 22日). 상주와 선산에서도 농민들이 관아로 쳐들어가 무장한 다음 고부로 와서 합세했다는 기록도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8쪽).

67) 巴溪生, 앞의 글, 54쪽.

식을 혈어 나누어 가지는 등 그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되자 '난민'들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⁶⁸⁾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민란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개시켜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인 2월 20일 경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봉기계획'을 실현에 옮기고자 전라도 각지로 보낸 '보국안민'을 위한 '倡義檄文'이다.⁶⁹⁾ 『南遊隨錄』에는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守牧之官은 治民의 道를 모르고 生貨의 本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毆단이 煩劇하여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草野의 遺民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坐視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君子들은 齊聲奔義하여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 안케 하자.⁷⁰⁾

『古阜民擾日記』에도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 58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다만 1군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兵米向은 먼저 郡倉의 세곡을 빼앗아 이에 충당한다는 것이다.⁷¹⁾

이것은 명백히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는 '舉義'를 선동하는 격문이다. 이 격문은 각 고을 관리들의 탐학 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대의 다른 고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轉運營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개 고을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민란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격문이야말로 공개적으로 '보국안민'을 위해 일제히 일어날 것을 각지에 촉구하는 최초의 '倡義宣言'인 것이며,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사실상의 농민혁명을 기도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이 척왜양운동에서와 같이 '반외세'에 경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輔國安民'을 위한 '倡義'의 목표에서도 척왜양 구호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齊聲奔義'의 당위성을 탐학한 지방관과 전운영의 폐해의 제거에 두고 있었다. 공주·삼례집회 때부터 교도대중들의 기저에 깔려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전면내 내건 것이다. 척왜양운동 단계와 달리 구호가 목적이 일치된 것이다.

2월 25일에는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하였고,⁷²⁾ 이어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轉運使 趙弼永을 징치할 것을 촉구하였다.⁷³⁾ 격문을 날린 데 이어 일대의 많은 고을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던 폐해의 근원인 전운영을 공격함으로써 인근 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⁷⁴⁾

68) 東學人全明肅者往投之 自爲狀頭之計 曰吳輩若不成所求 反受其禍 不加遽散 遂取官倉米食之 營邑許其所求 諸民曰吳成吳求去矣(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4月 9日, 『叢書』 3, 193쪽).

69)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叢書』 3, 180~181쪽. 종래에는 巴溪生의 「古阜民擾日記」, 黃玹의 「梧下記聞」 등을 이용하여 2월 22일 전후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창렬, 앞의 글(하), 1985, 126쪽], 『南遊隨錄』에서는 고부에서 각지로 격문을 돌린 사실을 2월 20일조에 기록하고 있어서 늦어도 2월 20일 이전에 격문이 飛傳된 것으로 보인다.

70)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叢書』 3, 180~181쪽.

71) 巴溪生, 앞의 글, 56쪽.

72) 巴溪生, 앞의 글, 56쪽.

73) 張奉善, 『全瑋準實記』, 356쪽.

74) 이 무렵 고부의 난민들이 부안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떠 돈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駐韓

그러나 '난민'들은 전봉준 공격을 꺼려하였다. 그것은 민요가 越境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 '난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⁷⁵⁾ '난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반적인 민란의 양상을 벗어나는 항쟁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과 지도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⁶⁾ 대부분의 '난민'들의 목표는 조병갑을 축출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재물을 환수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일반적인 민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난민'들의 의식은 결국 신임 고부군수로 부임한 朴源明의 효유가 쉽게奏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⁷⁷⁾

이어 3월 1일 전봉준은 수백 명의 '난민'을 동원하여 줄포의 稅庫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기도 하였다.⁷⁸⁾ 그러나 인근 읍의 호응은 없었다. 아직까지 인근 지도자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전봉준의 격문에 호응을 하는 인근 읍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각 고을에서 '擧義'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시일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신임군수 박원명의 효유가奏效하여 3월 3일경이면 그렇지 않아도 민란 수준을 뛰어 넘는 항쟁을 반대하던 '난민'들은 해산하기 시작하고,⁷⁹⁾ 3월 13일이면 완전히 해산하였다.⁸⁰⁾ 전봉준은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⁸¹⁾

그러나 전봉준의 <輔國安民倡義> 격문이 날아간 열흘 정도 뒤인 2월 말부터 고부 인근 읍에서 농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월 29일(양력 4월 4일)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⁸²⁾)에 동학당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었다.⁸³⁾ 3월 11, 12일경 동학당 약 3,000여 명쯤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⁸⁴⁾ 또 전봉준은 3월 10일 무렵부터 사냥꾼들로부터 충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⁸⁵⁾

한편 3월 11일경이면 충청도 황간 영동 옥천 보은 등지에서도 동학교도들이 크게 일어나 양반들이 봉욕을 당한 일이 있고,⁸⁶⁾ 무장기포 직후에는 진산에서 徐璋玉 관하의 농민군이 會所를 설치하고 전봉준과 상하상응하고 있었다.⁸⁷⁾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봉준은 2월 중

日本公使館記錄』1, 5쪽).

75) 張奉善, 앞의 글, 353쪽. 민요와 난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6) 金邦善의 『林下遺稿』에도 지도부와 민란증민간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全明叔等懼禍及身收民家銃奪民家農器 造鎗劍之屬 爲拒逆官軍之計 民有識見者 疑其作亂 新郡守朴源明 請鄭一西金道三 誘以禍福 解散衆民 全明叔知事不成 率砲軍五十名 往投茂長東學人孫化中(『총서』 5, 21~23쪽). 이때 고부민란의 난민들 간에는 적지 않은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토사 홍계훈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민란 사이에는 전봉준을 감영에서 온 수교와 함께 체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였다(『兩湖剿討臚錄』, 『東學亂記錄』 上, 167쪽).

77) 張奉善, 앞의 글, 354쪽.

78) 巴溪生, 앞의 글, 57쪽.

79) 張奉善, 앞의 글, 354쪽.

80) 정창렬, 앞의 글(하), 113쪽.

81) 金邦善, 『林下遺稿』 甲午 9月 日 濟行日記, 『총서』 5, 21~22쪽 ; 『金洛鳳履歷』 3면

82) 죽산에서 동쪽 40리 되는 곳은 바로 금구 원평일대이다(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7~128쪽 참조).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8쪽.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쪽. 여기서는 “대장으로 추대된 자는 田明述이라 하며 연령은 40세 가량으로서 복장은 보통이었다”고 하여 전봉준 부대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侍天教歷史』, 614쪽에는 3월 17일 손화중이 수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85) 이때 전봉준은 평을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는 말로 사냥꾼들을 유인하여 충기를 탈취하였다고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0쪽).

86) 李容穆, 『白石書牘』, 『총서』 3, 451·453·456쪽 참조.

87) 『金洛鳳履歷』, 4면 ; 『隨錄』, 『총서』 5, 183쪽.

순경의 격문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집주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수백 명이 법성포 진량면 황현리 대나무 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조총·호미·낫·삽 등을 탈취해갔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 동학에 반대하고 탄압하였던 자들을 잡아다가 구타하였고, 군량으로 삼기 위해 인근 石橋村의 米穀商 安德必이 質置해 둔 白米 60석을 빼앗아 가고 그 집을 파괴하였다.⁸⁸⁾ 또 이들은 무장현감에게 글을 보내 일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통보하였다.⁸⁹⁾

黃玹은 “右道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과 ‘난민’이 함께 어우러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 봉준 등은 茂長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⁹⁰⁾라고 하였다. 우도 10여 읍이라는 데서 볼 때 이때 움직인 농민들은 주로 고부민란 이전부터 지역 간의 조직적 연계의 단초를 보이고 있던 고을의 동학도들이었다. 또 열흘 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한 데서 이미 전봉준이 고부를 떠나 손화중에게 가기 이전인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¹⁾

고부민란은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의 폭발 이후 계획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무렵 전봉준이 각지에 격문을 보낸 지 열흘 뒤인 2월 말부터 인근 읍에서 ‘舉義’의 움직임이 가시화 하였다. 이어 고부에서 퇴각한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가서 양자간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3월 10일경부터는 인근 읍에서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해 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부민란이 정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내 민란이 해산한 뒤에야 전국적인 항쟁을 지향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 요인은 우선 按察使 李容泰의 만행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⁹²⁾ 무엇보다 전봉준의 노력에 의해 인근 읍의 호응이 이루어졌다는 점,⁹³⁾

88) 『隨錄』 『충서』 5, 159~160쪽. 이는 미곡상 안덕필이 日商에게 쌀을 팔기 위해 사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곡가를 앙등시키는 미곡유출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89) 『隨錄』, 161쪽.

90) 黃玹, 『梧下記聞』 首筆, 52쪽.

91) 이 무렵이면 전남 구례 일대에서도 “요즘 화적이 별때같이 일어나고 동학도가 세상을 어지럽혀 길 다니기가 몹시 어려워 곧장 떠날 수 없었다”고 하여(『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권2 是言, 1894년 2월 22일) ‘동학도’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世藏年錄』[金山에 거주하던 화순 최씨가에서 5대에 걸쳐 써 내려온 일기이며, 갑오년조는 崔鳳吉(1853~1907)이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영우,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 13~14 참조] 3월 11일조에는 이미 “이 무렵 동학이 대치하여 영남에는 최시형이라는 자가 자칭 법헌 선생이라 하며 보은 장내에 웅거하고 있고, 전라에는 田鳳俊이라는 자가 녹두장군이라 칭하며 전주 등지를 할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3월 20일조에는 인근의 송낙현이라는 자가 동학에 입도한 후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4년 전에 買得한 畝를 묵혔으나 그동안에 結稅만 빼앗겼으니 畝를 물리고 그동안 낸 結稅를 내놓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갔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무렵이면 경상도 일각에서도 동학도들의 행동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 전봉준은 공초에서 “其後의 長興府使 李容泰가 按察使로 本邑의 來하여 起包한 人民을 東學이라 通稱하고 列名하여 捕捉하며 其家舍를 燒灰하며 當者가 (無)하면 妻子를 捕하여 殺戮을 行하는 고로 다시 起包하였나이다”(『全瑋準供草』 初招問目, 313쪽)하여 이용태의 만행이 재차 기포한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梧下記聞』 首筆, 甲午 4월 19일조, 71쪽; 『南遊隨錄』 甲午 5월 1일조 등에서도 “고부민인들은 탐학을 견디다 못해 訴本官(고부군수-필자)하려 하면 亂類라 하고 訴營門하려 하면 逆類로 몰아 임의로 열읍에서 모병하여 鋒刀로 탄압과 살육을 일삼는 까닭에 부득이 일어났다”고 하여 관군의 무차별적인 탄압이 무장봉기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려준다.

93) “(전봉준이) 민요를 야기하다가 事不如意하여 茂長郡 孫化中을 運動하여”라는 표현은(『金洛履歷』, 3면) 인근

곧 지역 간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가담한 '난민'들은 아직까지 '擧義'를 수행할 만한 의식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던 자들이 아니라⁹⁴⁾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던 인근읍 및 일부의 고부민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감사가 그들이 바라는 案을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說諭하였기 때문에 난민들이 점점 離散하여 歸農하려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동학당의 一團은 무리를 지어 이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일본공사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⁹⁵⁾

이에 따라 '道'보다 난리에 뜻을 두고 동학에 입도한 후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그 스스로가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자각을 획득해 나가고 있던 교도들과⁹⁶⁾ 일찍부터 '보국안민'의 대업을 구상하고 있던 전봉준 등의 지도자들이 동학의 조직 기반을 활용하여 '합세'하였음을 뜻한다.⁹⁷⁾ 조직 면에서도 의식면에서도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⁹⁸⁾ 이와 같이 본격적인 '擧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布告文>을 발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5. 맺음말 :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봉기의 의의

읍의 호응을 불러일으키 위한 전봉준의 노력을 보여준다.

- 94) 물론 고부민란에 참여한 모든 난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러하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 106)~111)에서 보이듯이 난민들이 가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민란'이 보여주는 소우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원명의 효유로 대부분의 난민이 쉽게 해산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 9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0쪽 참조.

- 96) "고부군수 조병갑이 虐民誤政함을 因하여 고부인민과 말뚝市(말목장터를 말하는 듯함-필자)에 會同會集하여 조병갑을 축출하고 백산에 조병갑이가 虐民吸取하여 저장하여 노흔 백미 오백여석을 훔터 궁민을 구제하고 其後에 민단은 漏散되고 但 所餘者는 道人 불과 3백여 명인데 도인의 회집단도 疑雲이 萬疊에 散會의 機味가 발생하려 할 시에 전봉준이 拔劍揮空 若失此時면 吾道人은 生去無路이니 若一人이라도 散去者가 있으면 칼로 베히리라"(崔炳鉉, 『南原郡東學史』)라는 기록이나, 민란 난민들이 해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동학당의 일단'은 무리를 지어 이산하지 않고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0쪽)는 기록 등을 볼 때 고부민란에서 끝까지 해산하지 않았던 것은 '도인' 혹은 '동학당'으로 표현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학에 투신한 후 교조신원운동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변혁주체로서의 자각을 일정하게 획득해나가고 있던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97) 이때부터 동학과 난민이 '결합'하였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늦어도 1890년대 초반부터는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공감하고 敬天守心의 사상에서 협동일치를 발견함으로써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과 같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인물들과 '도 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부류들이 본격적으로 동학에 입도함으로써 동학과 난민의 '결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4년 3월 20일 기포는 이와 같이 동학조직을 매개로 이미 '結黨'되어 있던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인물들과 '도 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세력이 지역적 연계를 이룸으로써 '반란'의 대열에 '합세'하였다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 98) 여기에 대해서 李範奭은 "甲午全羅道古阜...民撓始起 朝廷不罪貪吏 徒治亂民 民皆入於東學 其魁田奉準者 驅亂民爲黨 猖獗湖南全道"(『確齋集』 4, 卷8 經亂錄)라 하였고, 黃玹은 "이때 동학과 난민이 합쳐졌다"고 하였다(『梧下記聞』 首筆, 52쪽). 또 "(鄭範朝) 民之始擾 由於殘虐貪饕 不得聊生而然 東黨匪類 乘時合勢 致此滋蔓者也"라는 표현이나(『日省錄』 高宗 31年 4月 4日), "東學之始於湖南也 守宰方伯 貪饕不公 侵虐萬端 列邑民擾 併時闖發 民擾不以東匪爲別 東匪不以民擾爲異 同聲相應 公私奔激 遂爲亂逆"하였다는 기록(『任城同苦錄』, 『鄉土研究』 2, 忠南鄉土史研究會, 1992에 영인 수록), 그리고 "全鳳俊本以東徒 又爲民擾之魁 自稱綠頭將軍 與亂民合勢 湖南諸邑東徒 莫不響應"(『時間記』, 甲午 正月) 등의 표현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는 길게는 1893년초부터 변혁지향세력이 기도한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 노력의 귀결이었고, 짧게는 1893년 말 전봉준이 주도하여 마련한 <농민혁명 봉기계획>의 결과였으며, 직접적으로는 고부민란 당시인 2월 20일경 전라도 전역에 보낸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격문>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고을 단위를 뛰어 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혁명을 수행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춘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였으며, 마침내 3월 20일 <무장포고문>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3월 20일 무장에서 봉기할 때⁹⁹⁾ 지도부가 발표한 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사람에게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 父子는 바로 인륜의 요체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된 자는 정직해야 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국가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충명한 정신과 뛰어난 예지를 겸비하신 분으로 만약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가 보필한다면 堯舜의 德化와 漢나라 文帝와 景帝의 政治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충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고 있다. 忠諫하는 말을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적 떼라 일컫는다. 조정에는 국가를 도울만한 인재가 없고 조정 밖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여, 집에서는 즐겁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건만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이미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옛날 管子는 “禮義廉恥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낱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늘어가는데 그것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다. 팔도가 죽음의 빛이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지만, 저 가혹한 지방관들의 가혹한 학정은 더욱 그러함이 있으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 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정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사는 까닭에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음.¹⁰⁰⁾

99) 무장기포에서 농민전쟁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慎鍾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참조.

100) 「隨錄」 茂長縣騰上東學人布告文,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5, 157~159쪽; 「茂長布告文」, 『東學亂記錄』 上, 142~143쪽; 「梧下記聞」, 『총서』 1, 52~54쪽; 「東學文書」 茂長縣東學布告文, 『총서』 5, 136쪽; 「東匪討錄」 東學輩布告文,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1894년의 農民戰爭篇』(이하 생략), 303~304쪽; 「東學史」 倡義文, 『東學思想資料集』 2(이하 생략), 464~465쪽; 「東學史」(초고본), 창의문(內譯), 『총서』 1(이하 생략), 452~453쪽; 「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총서』 2, 382-283쪽;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5-206쪽 참조. 『東學史』에는 포고문이 湖南倡義所 명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方伯守수으로부터 중앙의 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총체적 부패상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부패로 인해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나선다는, ‘보국안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 등이다.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포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不殺人 不殺物 2) 忠孝雙全 濟世安民 3) 逐滅倭夷 澄清聖道 4)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 이어 농민군들은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¹⁰¹⁾

<무장포고문>에는 외세에 대한 반대의 뜻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도에 반외세의 과제가 상정되어 있었다. 무장기포 당시 제시된 <4대명의>에서 드러나듯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에 대한 외세의 방해가 구체화할 경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2차 봉기가 경복궁 침범이라는 일본군의 구체적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점이나 우금티 전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그러나 무장기포 당시의 정황상 농민들의 의식 속에서 “척왜척양”은 아직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들의 과제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었다. 전봉준은 1893년에 들어 “척왜척양”을 내걸고 몇 차례의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척왜척양”의 구호가 가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이 “척왜척양”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곧장 서울로 쳐들어가 중앙권력을 전복하려던 이전 계획과 달리 고부에서 “민란” 형태로 봉기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봉준은 우선 농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던 불만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포고문>을 발포하였던 것이다. 그를 통해 四大名義에 제시된 바와 같이 驅兵入京하여 逐滅倭夷 및 盡滅權貴하여 濟世安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농민군이 궁극적으로 목적인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逐滅倭夷 및 盡滅權貴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자 과정이었다. <무장포고문>은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함축하고 있으며,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의로 되어 있으며, 全瑋準 孫和中 金開南의 이름이 대표로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장기포는 전봉준과 손화중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김개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주 35] 참조.

101) 『大韓季年史』, 『총서』 4, 363쪽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292~293쪽. 295쪽. 『大韓季年史』에는 4대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관계를 살 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명의 농민군을 불러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렸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기념일 제정 2차 토론회 요약

우윤: 1차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2차 토론회에서 더욱 진진시키자.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각 지역 기념사업회가 적극 참여요함. 지방차원보다 전국적 공감대 형성 필요

금년은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복원의 원년이다.

기념일 제정은 공정,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복원작업의 시작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복원하고 과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참석자 소개

발제자: 이이화(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신영우(충북대 교수)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배항섭(성균관대 연구교수)

토론자: 조광환(정읍 갑오농민혁명 제승사업회 부이사장)

노태구(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지수걸(공주대 사학과 교수)

이기화(고창 문화원장)

김양식(충북학 연구소장)

김성복(충북대 사학과 교수)

기념일 선정 고려사항

- 1) 고부 농민항쟁일 : 혁명의 전사
- 2) 무장 기포일: 혁명의 시작일
- 3) 백산봉기: 백산 집결일, 대의선포
- 4) 황토현 전승일: 혁명의 전기(감영준 격파)
- 5) 장성 황룡천 승전일

- 6)전주 입성일:혁명의 상징
- 7)집강소 설치:혁명의 성과(민정기관,폐정개혁)
- 8)삼례집회:혁명의 전환
- 9)남북접 기포령 발포(논산합류)
- 10)우금티 전투일 개시일:혁명의 최대 전쟁,한국 근대화 과정의 갈림길

배항섭:백산 대회의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다.

정진상:동학농민혁명을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기념일제정은 현재적 계승과 다음세대에 정신을 계승시켜야 한다.

기념사업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운동,교육운동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

1)동학농민전쟁은 사회운동사의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의 충돌이었으며 동학농민전쟁이라는 형태로 비약되었다.

2)봉건적 생산관계,신분제 해체를 통한 근대적 형태의 국민국가화를 지향했다.

3)사회운동의 철저한 패배이나 긍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따라서 기념일은 무장 기포일이 되어야 한다.

김양식:백산대회의 실체는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초한다.

동학사:농민의 집결지, 신용하교수:3/25일 추정

천도교서:백산에 근거하니,농민군의 확대개편 되었으며 근거지였다.

<<오하기문 일자별 분류>>

화호집결:관의 방어책 상실

3/29일에는 태인에 농민군 본부 설치

3/27~28일 백산 재집결 오라기문에 기록이 없는 이유는

조직 재편성→소강상태 추정

日史(강진):3월 22일 이전에 동학군 집결
무장기포문 전국적 도달

3/26일 백산집결

백산집결의 지향전과 목표의 이해 필요
백산대회의 시기,실체의 규명이 과제이다.

3/26일 이동~백산대회의 시작

고부점령(3/23일)→화약고 폭파(3/25일)

이이화:기념일 제정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지역이나 개인적인 이해는 탈피해야 한다.

전국적 호응을 만들기 위해 우금티 집전일을 기념일로
하면 좋겠다.

송찬섭:무장기포→백산대회까지 기념주간 선포하자

하원호:정부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혁명발발일 이지만
무장기포가 타당하다.

홍영기:백산봉기일의 의미가 크나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면
무장기포일이 타당하다.

이영호:1894년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전제한다면 무장기포일이
타당하다.

왕현종:기념주간을 선포하자.

지수걸:우금티 전투는 반외세 운동으로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우금티 전투일은 위령제가 필요하
며 대중참여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태구:음력 3/21일이 천도교의 입장이다.

이기화:“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
무장기포가 타당하다.

조광환:고부,백산대회,무장기포의 3자의 관계규명이 필요하다.

황토현의 역사적의미,지역민의 호응도,시기,계절,장소 등
을 고려할 때 황토현전승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적 낭비가 없도록 하자. 황토현에는 이미 기념관과 시설이 되어있다.

정진상: 추념일 보다 발전적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주체화, 제사, 의례 위주의 행사는 반대한다.

긍정적, 발전적 사고가 필요하다.

신영우: 한국 역사 전체의 측면에서 보자.

국가전체 구성원의 수용과 후손교육차원에서 생각하자

정진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자.

기념일과 기념행사장소 분리가 가능하다.

신영우: 민족적 의미. 국민적 합의 전제로 논의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큰 분수령이다. 세계사적 의미에 입각해서 기념사업등은 지역적 색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장봉기일을 당연히 하고있다.

일반적,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장기포일이 타당하다.

김양식: 기념일은 역사성, 대중성, 현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습관적 함정이 과거의 역사성에 집착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기념하는 지향성이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탈근대, 탈민족적 경향이다.

미래, 상생, 평화라는 관점에서 항일 민족적 편향화 가능성이 있다.

우윤: 세계사적, 미래지향적 기념일의 제정이 최고 목표이다.

신순철: 전주는 전주성 입성일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조광환: 폭넓은 의견수용, 역사교사들의 설문조사로, 홍보, 공감대 필요

배항섭: 농민전쟁의 경과를 다시한번 설명하면,

1892, 1893년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의해

전주, 서울 공격 준비하고 고부민란을 일으키나 함세하지

않고

고부관아에서 말목장터로 이전했다가 1월 20일 전에 백산에 성을 구축하고 2월 20일 창의적문을 전라도 각 지역에 통보하고 백산에 모이지 않고 박원명이 해산 시켰다.

전봉준은 3월 13일 고부에서 탈출하여 손화중과 면담 하였으나 손화중은 시기상조라 주장하고 지역호응이 없어 고부 봉기 실패하고 손화중의 호응이 있어 무장기포하여 3월 20일 포고문을 발하고 진격에 나섰다.

3월 20일이 확실하다. 동단협의 위임에 의해 학자들이 결정하기로 하였으니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순기:전라도 만의 동학농민전쟁이 아니라 금산 제월에서 3월 8일에 4,000명이 집결하여 기포하였다.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1895년 11월 말까지 금산, 진산지역의 재산, 인명피해가 가장 크다. 전주로 진격하기 전에 금산이 초토화 된 바 있다.

진윤식: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전쟁을 시작하였다.

무장 동학도의 핵심은 손화중포이다.

정현규: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온라인 투표나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우윤:제정 과정상의 절차이다.

진남표:모든일은 시작과 과정,결과가 있다.

기념일 제정의 이미는 혁명정신의 계승이다.

기념일 제정은 시작일로 부터가 승리와 원칙이다.

노태구:천도교의 입장은 남접,북접의 결합인 우금티 전투와 폐정개혁(집강소)이 중요하다.

범위를 넓혀서 동학사상만으로 만 되지 않는다.

백제정신의 계승,호남위주의 기념일,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해결하자.

송기홍:태어난 날이 기념일이다..

우윤:미래지향적,세계사적 해원상생의 정신으로 정리하자.

끝.